

[최종보고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2025. 10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목차

I. 제안 배경 및 연구 목적, 산출방법론	3
1. 제안 배경 및 연구 목적	3
2.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6
II. 소비자물가지수(CPI)	7
1. 소비자물가지수(CPI) 연평균 성장률(CAGR)별 분류	8
2. 소비자물가지수(CPI) 중분류 현황 및 물가안정 방향	12
3. 소비자물가지수(CPI) 항목별 현황	59
4.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중치 현황	62
5. 소비자물가지수(CPI) 특이품목 현황	63
III. 가계금융복지조사 비목별 소비지출	64
IV. 결론 및 요약	65

I. 제언 배경 및 연구 목적, 산출방법론

1. 제언 배경 및 연구 목적

- (제언 배경) 코로나 19 이후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여 오고 있어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품목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 장기저성장 기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실제 소비지출에 쓰이는 금액, 체감물가들이 괴리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인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자 물가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인 2021년에 상승폭이 가장 크고, 생산자 물가의 경우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남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출 항목에서는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공적연금·사회보험료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상위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중항목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함
 - 예를 들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구조인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문 제점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소비자물가지수를 위주로 물가상승이 높은 중항목을 조사하고, 가계 금융복지조사 등을 활용하여 물가 측면에서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찾고 대책을 정책제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
 - 소비자물가지수 중분류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한 시장을 살펴보고 분석
- 물가지수의 종류
 -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등이 있음
 - GDP디플레이터란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text{GDP디플레이터} = (\text{명목}$

GDP/실질GDP)×100

〈표 1〉 주요 물가지수

구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작성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은행
작성목적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수준 측정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수준 측정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수준 측정
대상품목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큰 소비재와 개인서비스 458개 품목	국내 거래규모가 큰 상품 781개 및 서비스 103개 품목	수출 및 수입 규모가 큰 수출 209개, 수입 229개 품목
대상품목 선정기준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인 품목	국내출하액의 1/10,000이 상인 상품 및 1/2,000 이상인 서비스 품목	전체 수출액 및 수입액의 1/2,000 이상인 품목
지수 기준연도	2020년	2020년	2020년
조사가격	소비자구입가격	기초가격	수출입계약가격
이용범위	- 생계비 또는 화폐가치 비교, 국민연금 수령액 및 노·사간 임금 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등 - 정부 재정, 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가계수지, 국민소득 계정 등 다른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 사용	상품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급파악, 실질국내총생산 산출 등	수출 채산성 및 수입 원가 변동측정, 교역조건 계산, 실질국내총생산 산출 등

자료: 김상봉 외 (2017), 거시경제학

☐ 소비자물가지수

-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2020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0분비로 산출, 품목 458개를 대상으로 작성
 -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20년, 가중치의 기준연도는 2022년임

☐ 생산자물가지수

-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요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
 - 선박, 무기류, 항공기, 예술품 등 동일한 품질규격의 유지가 어려운 품목은

제외

- 조사대상 품목은 886개(2025년 기준)이며, 기준년도는 2020년=100임
- 2010년 이후 가중치는 매년 변경되며, 2025년 적용되는 가중치를 표기함
 - 가중치기준시점은 지수계산에 필요한 가중치를 제공하는 시점이며 t-3년을 기준으로 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함
-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표본조사 결과로 상대표준오차(1.0%~25.0%)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함
-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은 조사연도의 전년 기준 자료임(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은 평균과 중앙값 항목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사용함

2.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소비지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년 각 지표의 연도별 증가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을 산출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복리 효과로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각 기간의 시작 및 종료시점의 값을 기반으로 계산

$$CAGR = \left(\frac{\text{최종값}}{\text{초기값}} \right)^{\frac{1}{n}} - 1$$

- 위의 CAGR 산출식에서 초기값은 분석 기간 내 시작시점(2018~2023년 중 해당연도의 지수값)이며, 최종값은 종료 시점인 2024년의 지수값, n은 분석기간 (년 수)을 의미
- 각 연도별 CAGR을 산출하면 기간별로 단기적인 변동성의 영향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표 2> CAGR 기준시점 및 변수 항목

변수 항목	항목 수	CAGR 기준시점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530개	2018년~2024년 각 연도별 CAGR
비목별 소비지출	12개	2018년~2024년 각 연도별 CAGR

□ CAGR에서 72법칙은 72라는 숫자를 CAGR(연평균증가율)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1억을 CAGR이 14%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72법칙으로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14로 대략 5년이 됨

II. 소비자물가지수(CPI)

□ 소비자물가 품목성질별 가중치는 1,000분비로 계산

- 2020년과 비교하여 2022년 가중치 개편에 따라 상품은 19.0(466.6→447.6) 감소
 - 8.2(83.8→75.6), 공업제품 10.1(348.4→338.3), 전기·가스·수도 0.7(34.4→33.7)
 모두 감소
- 2020년과 비교하여 2022년 가중치 개편에 따라 서비스는 19.0(533.4→552.4) 증가
 - 집세는 0.8(98.3→99.1), 개인서비스는 25.5(307.8→333.3) 증가하였으나, 공공
 서비스는 7.3(127.3→120.0) 감소

<표 3> 품목성질별 가중치 변화(1000분비)

	가중치(기준연도)			차이	
	2017년	2020년	2022년	2020년-2017년	2022년-2020년
< 총 지 수 >	1,000.0	1,000.0	1,000.0	0.0	0.0
상 품	448.5	466.6	447.6	18.1	-19.0
농축수산물	77.1	83.8	75.6	6.7	-8.2
농 산 물	40.9	43.8	38.4	2.9	-5.4
곡물	6.7	8.0	6.3	1.3	-1.7
채소	15.8	16.9	14.3	1.1	-2.6
과실	15.6	15.1	14.6	-0.5	-0.5
기타농산물	2.8	3.8	3.2	1.0	-0.6
축 산 물	24.5	27.6	26.4	3.1	-1.2
수 산 물	11.7	12.4	10.8	0.7	-1.6
공 업 제 품	333.1	348.4	338.3	15.3	-10.1
가공식품	71.9	86.8	82.7	14.9	-4.1
내 구 재	74.2	84.9	73.0	10.7	-11.9
섬유제품	54.2	43.6	43.8	-10.6	0.2
출 판 물	5.8	4.9	4.2	-0.9	-0.7
석 유 류	43.0	39.4	46.6	-3.6	7.2
의 약 품	14.4	15.9	15.9	1.5	0.0
화 장 품	13.0	10.9	11.1	-2.1	0.2
기타 공업제품	56.6	62.0	61.0	5.4	-1.0
전기·가스·수도	38.3	34.4	33.7	-3.9	-0.7
서 비 스	551.5	533.4	552.4	-18.1	19.0
집 세	93.7	98.3	99.1	4.6	0.8
공공서비스	142.5	127.3	120.0	-15.2	-7.3
개인서비스	315.3	307.8	333.3	-7.5	25.5
외 식	126.6	126.7	138.0	0.1	11.3
외식제외	188.7	181.1	195.3	-7.6	14.2

1. 연평균 성장률(CAGR)별 분류

-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자가주거비포함지수 2024년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CAGR을 추정
- 총지수, 자가주거비포함지수 모두 2021년 기준 CAGR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 소비자물가지수 및 자가주거비포함지수 연도별 CAGR 산출

단위: %

계정항목	가중치	2018년 기준 CAGR	2019년 기준 CAGR	2020년 기준 CAGR	2021년 기준 CAGR	2022년 기준 CAGR	2023년 기준 CAGR
총지수	1000	2.4	2.8	3.4	3.7	3.0	2.3
자가주거비 포함지수	1257.6	2.0	2.4	2.9	3.1	2.4	1.9
자가주거비	257.6	0.7	0.8	1.0	0.9	0.4	0.2

주: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자료: 통계청

- 2018년~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중분류별로 CAGR을 산출하여 상위 15개 선정
-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 식료품 등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18년) 6.1% → (19년) 7.0% → (20년) 9.3% → (21년) 13.2% → (22년) 11.2% → (23년) 3.1%
 -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18년) 4.6% → (19년) 4.9% → (20년) 6.0% → (21년) 6.9% → (22년) 6.2% → (23년) 3.6%
 -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 (18년) 5.0% → (19년) 4.8% → (20년) 5.9% → (21년) 6.4% → (22년) 5.8% → (23년) 3.9%
 - 식료품: (18년) 4.3% → (19년) 5.2% → (20년) 5.3% → (21년) 5.0% → (22년) 4.6% → (23년) 4.1%

<표 5> 소비자물가지수 2018년~2019년 기준 CAGR 상위 15개 중분류(2024년말)

단위: %

계정항목	2018 기준 CAGR	총 증가율	계정항목	2019 기준 CAGR	총 증가율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6.1	42.6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7.0	42.6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트	5.0	34.4	기타서비스	5.3	32.1
기타서비스	4.8	32.1	식료품	5.2	28.8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4.6	30.6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4.9	30.6
식료품	4.3	28.8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트	4.8	34.4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4.2	28.1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4.3	28.1
주거시설 유지·보수	3.9	26.1	음식 서비스	4.0	24.2
음식 서비스	3.7	24.2	주거시설 유지·보수	4.0	26.1
비주류 음료	3.5	22.8	비주류 음료	3.9	22.8
숙박 서비스	3.3	21.3	숙박 서비스	3.7	21.3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3.0	19.6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3.4	18.5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2.9	18.5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3.4	19.6
운송 서비스	2.8	18.1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3.3	16.1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2.5	16.1	의류	2.9	15.6
의류	2.4	15.6	운송 서비스	2.8	18.1
평균	2.8		평균	3.3	

주1: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주2: 총 증가율은 {(2024년-시작연도)/시작연도}×100

주3: 평균은 중분류 항목 CAGR 산술평균 값임

주4: 굵은 표시는 추후 분석대상 항목임

자료: 통계청

<표 6>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2021년 기준 CAGR 상위 15개 중분류(2024년말)

단위: %

계정항목	2020 기준 CAGR	총 증가율	계정항목	2021 기준 CAGR	총 증가율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9.3	42.6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13.2	42.6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6.0	30.6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6.9	30.6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페트	5.9	34.4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페트	6.4	34.4
기타서비스	5.7	32.1	기타서비스	6.4	32.1
식료품	5.3	28.8	비주류 음료	5.7	22.8
음식 서비스	4.9	24.2	음식 서비스	5.6	24.2
비주류 음료	4.7	22.8	단체여행	5.4	11.0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4.4	28.1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5.2	18.5
주거시설 유지·보수	4.4	26.1	식료품	5.0	28.8
단체여행	4.4	11.0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4.9	19.6
개인운송장비 운영	4.2	6.6	의류	4.6	15.6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4.0	18.5	숙박 서비스	4.5	21.3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4.0	16.1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4.4	28.1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4.0	19.6	주거시설 유지·보수	4.2	26.1
의류	3.5	15.6	기타 개인용품	3.8	14.1
평균	3.7		평균	4.3	

주1: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주2: 총 증가율은 $\{(2024\text{년}-\text{시작연도})/\text{시작연도}\} \times 100$

주3: 평균은 중분류 항목 CAGR 산술평균 값임

주4: 굵은 표시는 추후 분석대상 항목임

자료: 통계청

<표 7> 소비자물가지수 2022년~2023년 기준 CAGR 상위 15개 중분류(2024년말)

단위: %

계정항목	2019 기준 CAGR	총 증가율	계정항목	2023 기준 CAGR	총 증가율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11.2	42.6	기타서비스	7.2	32.1
기타서비스	6.5	32.1	기타 오락 및 문화용 주요 내구재	5.1	6.4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6.2	30.6	운송 서비스	4.7	18.1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	5.8	34.4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4.3	28.1
의류	5.3	15.6	식료품	4.1	28.8
비주류 음료	5.2	22.8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	3.9	34.4
기타 개인용품	4.6	14.1	의류	3.7	15.6
식료품	4.6	28.8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3.6	30.6
음식 서비스	4.5	24.2	음식 서비스	3.1	24.2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4.4	28.1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3.1	42.6
숙박 서비스	4.1	21.3	기타 개인용품	2.9	14.1
운송 서비스	4.1	18.1	숙박 서비스	2.8	21.3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3.8	19.6	운송장비	2.5	8.6
기타 오락 및 문화용 주요 내구재	3.7	6.4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2.3	16.1
단체여행	3.3	11.0	신문, 서적 및 문방구	2.2	10.7
평균	3.8		평균	2.9	

주1: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주2: 총 증가율은 {(2024년-시작연도)/시작연도}×100

주3: 평균은 중분류 항목 CAGR 산술평균 값임

주4: 굵은 표시는 추후 분석대상 항목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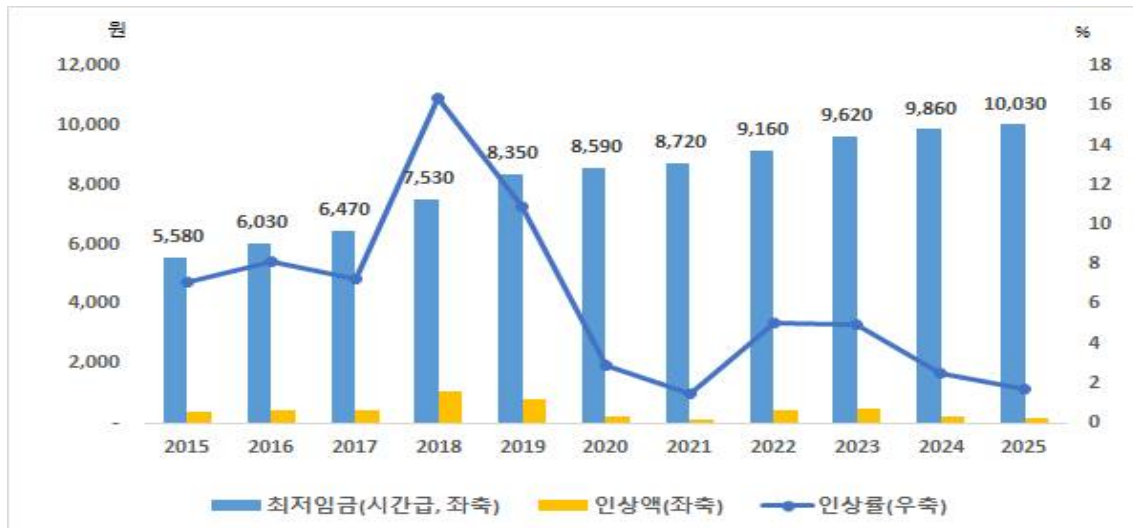
2. 소비자물가지수 중분류 현황 및 물가 안정 방향

- 소비자물가지수 중분류 2018년 기준 CAGR 상위 15개 항목과 2019년~2023년 기준 CAGR 상위 15개 항목 중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가중치가 높은 2가지 항목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함
 - 2018년 기준 CAGR 상위 15개 항목
 -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페트, 기타서비스,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식료품,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주거시설 유지·보수, 음식 서비스, 비주류 음료, 숙박 서비스,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운송 서비스,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의류 15개 항목
 - 2019년~2023년 기준 CAGR 상위 15개 항목 중 2018년 기준 CAGR 상위 15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가중치가 높은 단체여행, 개인운송장비 운영 2개 항목
- (공통 항목 : 인건비) 모든 소비자물가지수 중분류 분석에서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임
 - 최저임금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표적인 것이 고용임
 -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고용 등의 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함
 -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었으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 2017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16.4%)이 올랐으며, 이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0,42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1,573,770원임
 - 2022년 최저임금은 9,000원을 돌파했으며,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10,000원을 넘어섰음
 - 2025년 최저임금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환산 시 80,24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2,096,270원임
 - 결과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중분류 18개 항목에 대해 항목별 현황 및 항목별로 적용되는 물가 상승 요인, 물가 안정 방향 등 물가 측면에서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항목별 적용되는 물가 상승 요인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은 모든 항목에 적용되어 항목별 분석에서는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서술

- (정책제언 : 인건비) 최저임금의 결정은 산업별로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음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 인상률



2.1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가중치 32.6)에는 전기, 가스, 기타연료가 존재하며, 특히 전기(16.1)와 가스(12.4)의 가중치가 대부분을 차지함
- 전기와 가스는 가격결정 및 판매는 국내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전력 발전부문에서는 경쟁이 도입된 상황이며, 송배전 부문 및 소매판매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
 -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한 도매사업자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고, 소매시장은 전국 34개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지역적으로 독점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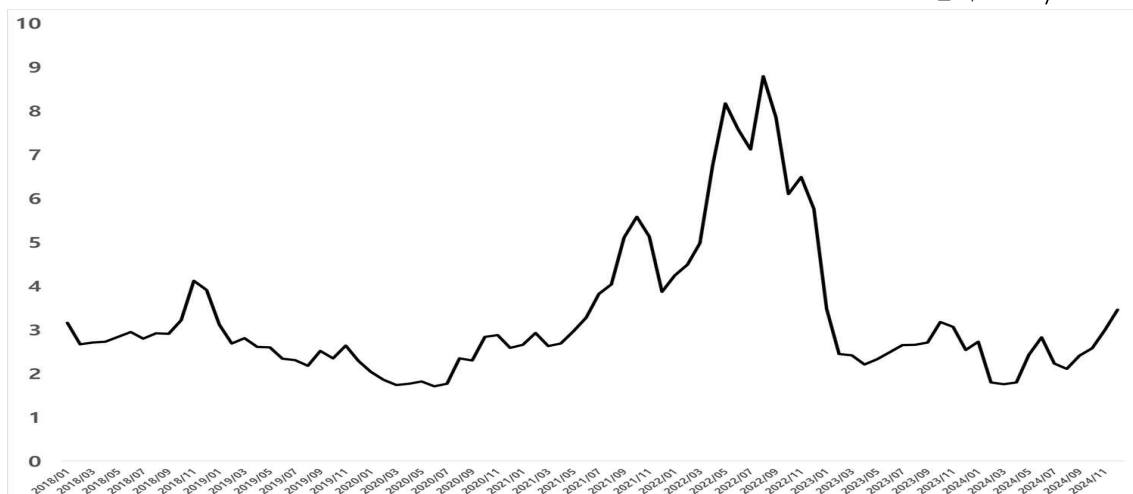
- 전기 생산 방식은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천연가스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크게 4가지가 있음
 -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은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원료비가 많이 차지함
 - 재생에너지 관련된 발전시설은 많이 들어와 있지만 남해안에 깔아놓은 태양광 등 송배전망이 없는 상황
 - 전기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배전망이 존재하는데, 이를 설치할 여력이 없음

-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는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것이며, 원료가 되는 것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 등에 의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지배적

- 지속된 코로나 상황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이상 기후 피해 등이 발생하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였고, 환율 또한 2021년을 기점으로 우상향하는 추세임
 - 2021년 9월 100만 BTU당 전년동월대비 2.8달러(121.7%) 상승한 5.1달러
 - 2022년 8월 100만 BTU당 전년동월대비 4.9달러(122.5%) 상승한 8.8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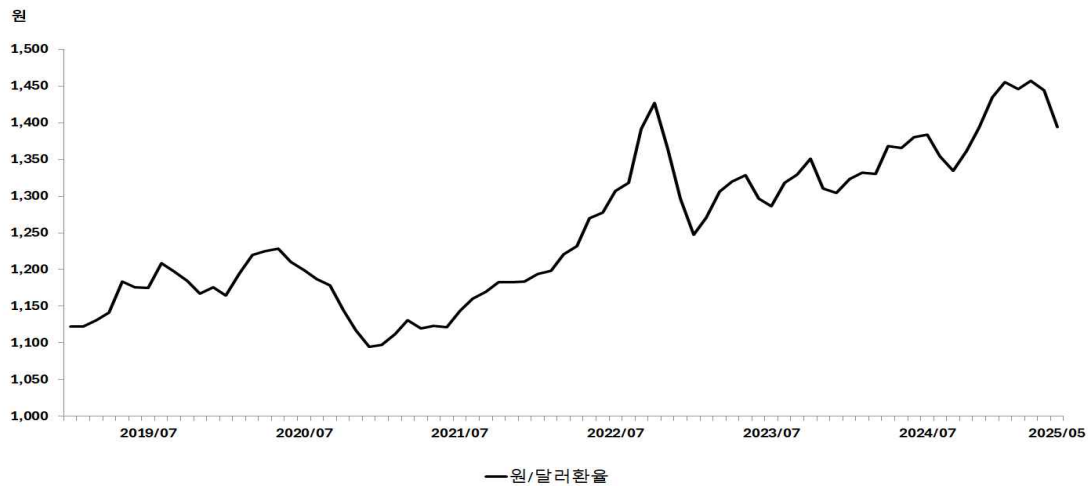
<그림 2> 천연가스 현물가격 추이

단위: USD/MMBtu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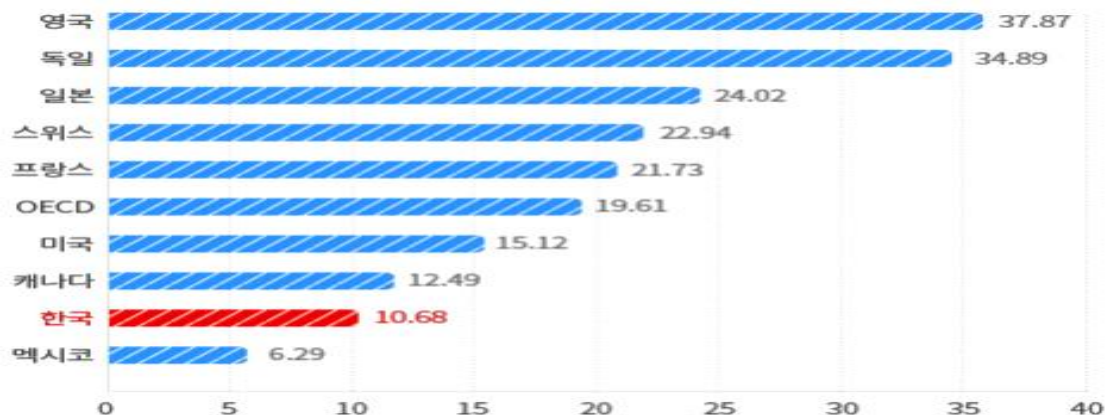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원료 도입 가격이 상승하면 전력 공급 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 전력 에너지는 공공재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보다 낮게 전기요금이 책정되는 일이 지속되는 상황
 - 2025년 3월 한국전력공사(KEPCO)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5조로 열악한 재무 상황
 - 전력 판매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음
 - OECD 국가 중 한국의 전기요금은 10.68¢/kwh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

〈그림 4〉 OECD 국가 전기요금 수준 비교(가정용 전기요금, 2023.8월 기준)

단위: ¢/kwh



자료: 이지훈 외(2024)

-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 한국전력공사(KEPCO)는 전기요금 1%를 조정하면 CPI는 0.0155%p, PPI는 0.032%p 오를 것으로 전망(유재국, 2022)
 - 산업용 전기요금 5%만큼 계속 인상 시 해당 기에 CPI 0.26%, PPI 0.35% 상승(최봉석, 이유수, 2024)
 -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 5% 인상 시 CPI, PPI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게 도출
- 결론적으로,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는 외부적 요인이 지배적이며, 규제로 인해 생산비용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

2.2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

-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장롱, 침대, 싱크대 등 포함
 -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가중치 8.7) 중 장롱, 침대, 싱크대의 가중치는 각각 1.3, 2.7, 1.3
 - 2024년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의 지수는 125.95로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 2024년 싱크대의 지수는 142.36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상승

〈표 8〉 소비자물가지수 중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 항목

계정항목	가중치	2020	2021	2022	2023	2024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펫	8.7	100	104.57	112.55	121.25	125.95
장롱	1.3	100	100.69	107.66	111.46	119.67
침대	2.7	100	106.62	112.78	120.44	123.68
싱크대	1.3	100	111.01	121	131.39	142.36

주: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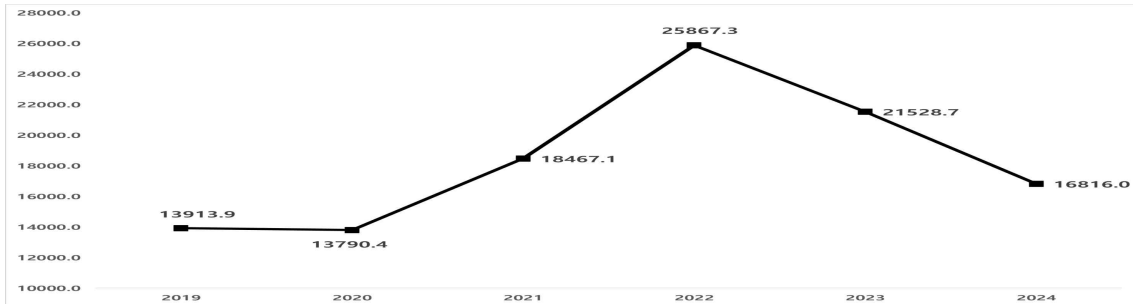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장롱, 침대 등의 경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목 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싱크대는 스테인리스를 주로 사용하여 철강 및 니켈 가격에 영향을 받음

- 2022년 니켈 가격 1톤 당 전년동월대비 7,400달러(40.1%) 상승한 25,867달러
- 2024년 니켈 가격 1톤 당 전년동월대비 4,712달러(21.9%) 하락한 21,528달러

<그림 5> 니켈 가격 추이

단위: US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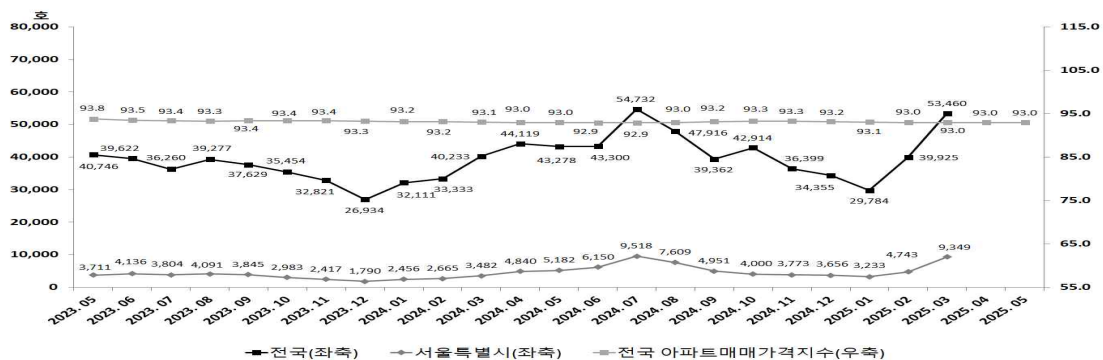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국내 주요 가구업체는 2022년 각각 3~5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23년 1월에도 가격 인상을 진행함

- 한샘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격 인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함
- 업계 관련자는 매출이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의 부담이 상승해 가격을 올린 상황이라고 설명함
- 코로나19 기간 가구 교체 수요가 대거 발생하여, 3~7년간 가구 교체 가능성이 낮으며, 주택 거래량 등 주택 시장 침체 또한 가구업체에 영향을 미침
 - 2025년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53,460호)은 전월(39,925호)대비 33.9% 증가, 2025년 5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93.0)는 전월(93.0) 대비 동일

<그림 6>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매매가격 지수



주: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기준시점 2022년 1월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2.3 기타 서비스

- 기타 서비스(가중치 19.8)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보험서비스료, 자동차보험료, 산후조리원이용료, 보육시설이용료 등이 존재
 - 보험서비스료의 가중치 8.6으로 기타 서비스 가중치 19.8의 약 절반을 차지함
- 보험서비스료에는 매달 납입하는 종신보험 보험료와 같은 생명 정기보험료, 실손의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약 3997만 명으로 국민의 77.4%가 계약중
- 보험서비스료 상승요인은 높은 손해율 때문임
 - 손해율은 생명·손해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손해율이 100%가 넘는 것은 보험사들이 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음을 의미함
 -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2022년(104.8%) → 2023년(107.1%) → 2024년(102.0%) 100% 이상으로 보험사에서 적자를 보는 상황임

〈표 9〉 경과손해율 현황

단위: %, %p

	2022년 말	2023년 말(A)	2024년 말(B)	증감(C=B-A)
전체	101.3	103.4	99.3	△4.1
생명보험사	84.7	86.4	86.5	0.1
손해보험사	104.8	107.1	102.0	△5.1

자료: 금융감독원(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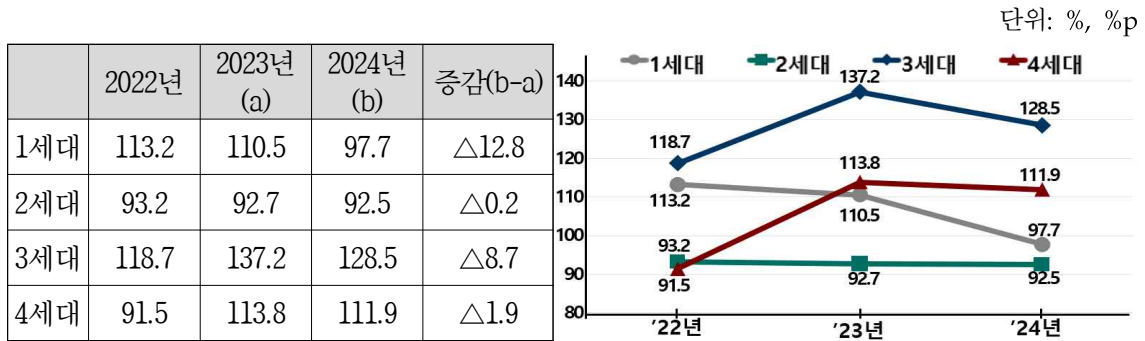
-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 분류를 진행하여, 현재 1에서 4세대로 구분되어 있음
-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해 온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에 비해서 3·4세대 상품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
 - 3세대 경과손해율 2022년(118.7%) → 2023년(137.2%) → 2024년(128.5%)
 - 4세대 경과손해율 2022년(91.5%) → 2023년(113.8%) → 2024년(111.9%)

<표 10> 실손보험 세대별 주요 보장내용

구분	1세대 (~'09.월)	2세대(2009.10월~2017.3월)			3세대 (2017.4월~2021.6월)		4세대 (2021.7월~)
		선택형 I	표준형	선택형 II	표준형	선택형 II	
자기 부담률	손보 0% 생보 20%	10%	20%	급여 10% 비급여 20%	20%	급여 10% 비급여 20%	주계약(급여) 20%
					특약 30%	특약 30%	특약(비급여) 30%
갱신	1~5년	3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자료: 금융감독원(2025)

<그림 7> 세대별 경과손해율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2025)

- 손해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도수·체외충격과·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존재
 -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가 지속
- 2024년 실손 지급보험금(15.2조원)은 전년대비 8.1% 증가하였고, 특정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의 보험금 쏠림현상이 심화됨
 - 2024년 실손 지급보험금 중 급여(6.3조원)와 비급여(8.9조원)는 각각 7.7%, 8.4% 증가
 -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의 보험금은 각각 2.8조원, 2.6조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
 - 비급여주사료 보험금 증가율 2023년(25.3%) → 2024년(15.8%)
 - 근골격계질환 보험금 증가율 2023년(12.0%) → 2024년(14.0%)

<표 11> 급여·비급여 실손보험금 현황

단위: 억원, %

	' 22년	' 23년(a)	' 24년(b)	증감(c=b-a)	증감률(c/a)
전체	128,868	140,813	152,234	11,421	8.1%
급여	50,281	58,780	63,306	4,526	7.7%
비급여	78,587	82,033	88,927	6,894	8.4%

자료: 금융감독원(2025)

<표 12> 주요 치료항목 실손보험금 현황

단위: 억원, %

	2022년	2023년(a)	2024년(b)	비중	증감(c=b-a)
전체	128,868	140,813	152,234	100%	11,421(8.1%)
비급여 주사제 관련1)	19,353	24,254	28,092	18.5%	3,838(15.8%)
근골격계 물리치료 관련2)	20,612	23,084	26,321	17.3%	3,237(14.0%)
암 치료 관련3)	11,905	14,022	15,887	10.4%	1,865(13.3%)

주1: 비급여 주사료가 고액 청구된 건(암 관련 진단을 받았거나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입통원한 경우 제외)

주2: 근골격계 질환 또는 상해를 진단받고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 관련 청구된 건

주3: 암 관련 진단[진단코드 C00~C99]을 받고 치료받은 건(제자리암, 양성 종양 등으로 진단[진단코드 D00~D99]받은 건은 미포함)

자료: 금융감독원(2025)

- ☐ (정책제언)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제도 변화도 가능
- 과잉 의료이용·비급여 쏠림 등이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2.4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 ☐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서비스(가중치 10.1)의 경우 비내구성 가정용품과 가구내 고용 및 가사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5년 5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3.2% 상승함
- ☐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서비스 중 비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

년동월대비 3.0% 상승함

-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운송, 물류비 증가, 인건비 증가 등 생산비용 상승이 원인임
 - 예를 들면 국내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비내구성 가정용품의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함
- 소비자들은 가격이 상승하여도 생활 필수품은 필수적으로 지출하고 있음
 - 고물가 속에 가전 및 의류 등 비식품 매출은 줄어들어도 식품 생필품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음
 - 비내구성 가정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초저가 브랜드인 D사의 경우 현재 공급가가 5,000원에 묶여 있어,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자의 경우 납품 마진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박리다매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기에 생산자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임(박지영, 2025)

□ (정책제언) 일상 생활용품의 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PB확대와 중소형 매장의 경우 D사처럼 유통구조를 개편하여 유통비용을 낮추면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물가를 낮출 수 있음

□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서비스 중 가구내 고용 및 가사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함

-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임금 상승과 공급 감소로 점점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즉 하루 10시간 기준 가사 육아도우미 월평균 비용은 약 264만원까지 오른 상태임
 - 따라서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소로는 임금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가구내 고용 및 가사서비스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만 이용하는 '쪼개기 고용'을 방안으로 들 수 있음
 - 현재 '쪼개기 고용'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1분기에만 약 90만명을 연결하였으며 청소대행의 경우 매출은 30%이상 상승(김다빈, 2024)

- (정책제언) 정규 고용이 아닌 플랫폼을 활용한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서로 다른 플랫폼과 플랫폼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물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5 식료품

- 식료품(가중치 132.3)은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두 번째로 큰 가중치 차지
- 식료품 항목으로는 빵 및 곡물(22.3), 육류(28.6), 어류 및 수산(13), 우유, 치즈 및 계란(9.6), 식용유지(1.4), 과일(15.6), 채소 및 해조(15.7), 과자, 빙과류 및 당류(10.4), 기타 식료품(15.7)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아 수입 의존도가 높고, 복잡한 유통구조
- 2022년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9.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2021~2023년 3년간 밀·옥수수 등 곡물 평균 자급률은 19.5%
 - 한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389억 달러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옥수수, 소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세계 전체 수입액의 6.9%, 6.6%, 6.1% 차지함
 - 밀과 대두는 전년동월대비 4.5%, 13.1% 하락, 옥수수는 7.8% 상승
 - 이러한 가격 하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 원자재 및 주식시장 전반의 약세 흐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표 1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22/23	2023/24	2024.4	2025.3	2025.4	변동률		
						22/23 대비 23/24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밀	287	222	208	200	198	-22.8	-4.5	-0.6
옥수수	248	174	171	179	185	29.8	7.8	3.2
대두	535	444	428	369	372	-17.1	-13.1	0.7

주1: 밀의 곡물연도는 전년 6월~당해년 5월

주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전년 9월~당해년 8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 2023년 유통비용률은 49.2%이며, 이는 소비자 구매비용이 1,000원일 경우 농가 수취가격은 508원, 유통비용은 492원을 의미함
 - 유통비용 492원 중 직접비는 171원, 간접비는 175원, 이윤은 146원을 의미

<표 14> 2023년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단위: %

구분	소비자 지불가격(100.0)			
평균	생산자수취율 (50.8)	유통비용률(49.2)		
비용별		직 · 간접비(34.6)		이윤(14.6)
		직접비(17.1)	간접비(17.5)	
단계별		출하단계(9.5)	도매단계(14.5)	소매단계(25.2)

주1: 35종류의 조사지역 전체 가중평균치임 (조사 품목 48종류 중 수입농산물 13종은 제외)

주2: 유통비용 49.2의 의미 (소비자 가격 - 생산자수취가격)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

- 단기성 수급 불안 요인이 있거나 대체품이 적은 엽근채류와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조미채소류는 유통비용율이 높았지만, 저장성과 연중 소비가 일정한 식량 작물류는 유통비용률이 타 품목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음

<표 15> 부류별 유통비용률(조사지역 전체평균)

단위: %

부류	생산자수취	유통비용률						
		비용별				단계별		
		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출하	도매	소매
식량 작물류	64.2	35.8	14.1	7.3	14.5	15.1	5.7	15.0
엽근채류	35.7	64.3	38.9	8.0	17.4	23.6	16.3	24.5
과채류	49.0	51.0	21.1	8.3	21.6	15.9	13.1	22.0
조미채소류	39.2	60.8	24.9	7.1	28.8	21.6	12.2	26.9
과일류	51.9	48.1	23.2	7.7	17.2	15.2	17.3	15.5
화훼류	46.7	53.3	28.9	13.4	11.0	2.9	24.3	26.1
축산부류	49.9	50.1	11.9	27.9	10.3	1.6	17.2	31.3
전체가중평균	50.8	49.2	17.1	17.5	14.6	9.5	14.5	25.2

주1: 생산자수취는 각 품목별 시장 규모(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평균값임

주2: 전체 유통실태조사 품목 중 수입농산물은 제외

주3: 본 자료의 유통비용은 전국 통계자료가 아니고, 주산지 실태조사 자료임

주4: 소수점 반올림 영향으로 수치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

- 식량 작물류, 과일류는 유통비용률이 50% 이하인 반면, 엽근채류, 과채류, 조미채소류, 축산부류, 화훼류는 유통비용이 높게 나타남

<표 16> 부류별 유통비용률 변동 특징

단위: %

부류	‘22년	‘23년	품목	특징
식량 작물류	38.9	35.8	쌀, 콩, 감자	쌀 재배면적 감소와 전락작물직불제 영향으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져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유가 하락에 따른 쌀, 봄감자 운송비 하락 등으로 식량작물류 총 유통비용률 3.1%p 하락
엽근채류	62.7	64.3	배추, 무	엽근채소류는 인건비, 농자재값 상승으로 직접 비용이 상승하였으며, 배추 하차거래 도입으로 펠릿 적재를 위한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여 유통비용률 1.6%p 증가
과채류	46.4	51.0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딸기	수박 작황 부진에 따른 상품성 저하로 경락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소비자가 하락 폭이 작아 소매단계 이윤이 증가하였으며, 농촌 노동력 부족과 최저시급 인상으로 선별비 상승으로 유통비용률 4.6%p 증가
조미 채소류	57.0	60.8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대파 ‘21년 대비 ‘23년 시장 공급량 회복에 따른 시장가격 내림 추세에 직접비가 상승했으며, 조미채소류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비 상승으로 유통비용률 3.8%p 증가
과일류	52.8	48.1	사과, 배, 감귤	사과 ‘23년 작황 부진에 따른 물량 감소로 경락가, 소비자가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고, 사과, 배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감귤 수요가 집중되며 감귤 경락가와 판매가가 높게 형성되며 생산자 수취율이 늘면서 유통비용률은 4.7%p 감소
축산부류	50.0	50.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인건비 등 직접비용 상승에 따라 유통비용률 0.1%p 상승
화훼류	54.8	53.3	장미, 국화	국내산 장미 재배면적 감소와 고온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음에 따라 경락가와 소비자가격이 상승해 생산자수취는 증가하고 유통비용률은 1.5%p 감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5)

- 2023년 유통비용률은 전년 대비 0.5%p 하락한 49.2%
 - 직접비: 인건비, 자재비 등 직접비 총액의 상승으로 직접비용률 0.2%p 상승
 - 간접비: 인건비, 점포 관리비 등 간접비용 인상에 따라 간접비용률 0.5%p 상승
 - 이윤: 이상기후에 의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자 수취 상승폭이 이윤보다 커 이윤율 0.8%p 감소

<표 17> 부류별 유통비용률 추이(조사지역 전체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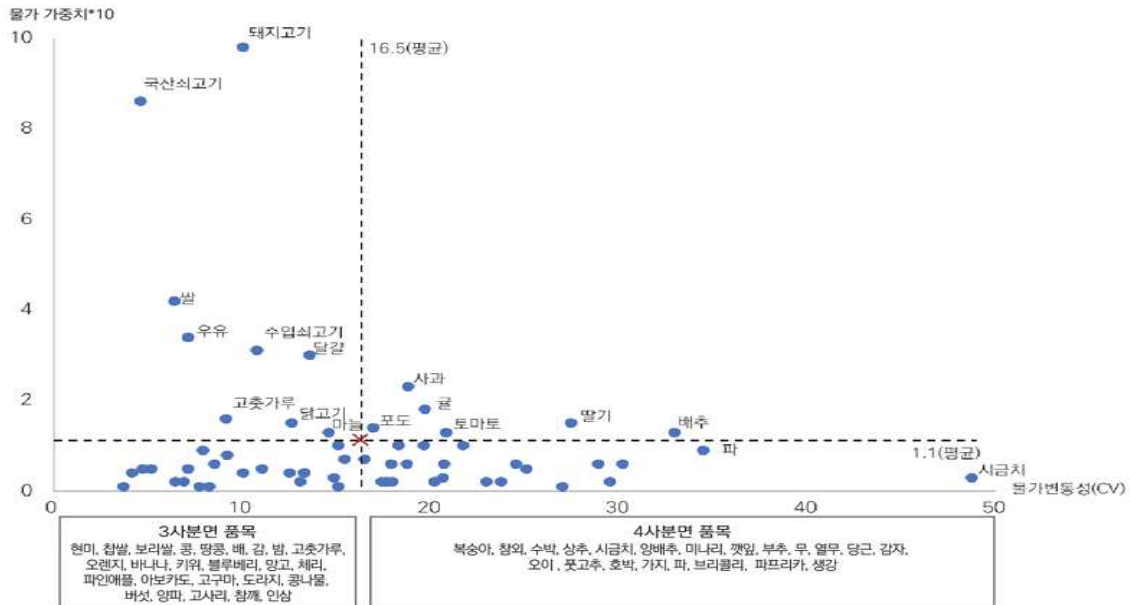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유통비용률		47.5	47.5	48.8	49.7	49.2
비 용 별	직 접 비	17.2	16.0	16.3	16.9	17.1
	간 접 비	18.2	18.2	16.3	17.0	17.5
	이 윤	12.1	13.3	16.2	15.8	14.6
단 계 별	출하단계	9.2	8.5	8.4	9.6	9.5
	도매단계	10.9	10.8	11.7	13.5	14.5
	소매단계	27.4	28.2	28.7	26.6	25.2

주: 조사지역 전체평균의 가중평균치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5)

- 농축산물 중 소비자물가지수에 어떤 품목들이 더 크게 기여하는지, 어떤 품목들의 가격 변동성이 큰지 살펴보기 위해 품목별 물가변동성과 소비자물가 가중치 분석(김상호, 최재현, 2024)
 - 물가변동성이 높고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배추, 딸기, 사과, 귤 등 대부분 과실류 품목들이 해당됨
 - 물가변동성이 낮고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쌀, 마늘, 고춧가루, 돼지고, 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품목들이 해당됨
 - 물가변동성이 높고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낮은 품목은 복숭아, 참외, 수박, 상추, 시금치, 파 등이며, 특히 시금치와 파의 경우 높은 물가변동성을 보임
 - 물가변동성이 낮고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낮은 품목은 현미, 찹쌀, 배, 감, 망고 등

<그림 8> 농축산물 품목별 물가변동성과 소비자물가 가중치 비교



주1: 가로축은 물가변동성(CV: Coefficient of Variation)을, 세로축은 소비자물가가중치×10을 의미하며, 평균은 산술평균한 수치임

주2: 물가변동성은 2020년 1월~2023년 12월까지 각 품목의 월별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표준편차/평균*100)으로 산출함

자료: 김상효, 최재현(2024)

□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음(김종진 외, 2023)

○ 농축수산물 물가는 비농식품 투입재의 높은 원가 비율로 농식품 투입재 물가 변화 영향보다 비농식품 물가 변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농축산물 물가는 수입 농식품 물가 상승 영향(10% 상승 시 0.3%)보다 수입 비농식품 영향(1.1%)이 컸으며 국산 투입재도 농식품(1.7%) 영향보다 비농식품(3.4%) 영향이 크게 분석
- 다만, 사료를 투입재로 사용하는 축산물은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요 측면에서 국산 농축산물 물가 10% 상승 시 국내 가공식품 물가는 1.4% 상승

○ 가공식품 물가는 국산 농축수산물(1.4%)보다 수입 농식품(1.8%)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국산 및 수입 비농식품 물가 영향이 농식품 영향보다 큰 것으로 분석

- 수입 및 국산 농식품 영향 합은 2.2%이었으나 비농식품은 5.5%로 높았으며, 가공식품 물가 10% 상승은 농축수산물 물가 1.7%(축산물 영향이 큼)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

-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은 다음과 같음(김상호 외, 2022)
 -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누적 식품물가 파급영향은 여타 요인의 영향에 비해 크며, 제분, 제당, 배합사료, 전분 및 당류 순으로 가공식품 물가상승 기여율이 큰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1분기 국제 원재료 가격이 2년 전인 2020년 1분기 대비 추가로 45~56% 상승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가공식품 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약 2.0~21.8%의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상승 요인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공식품 물가상승 요인보다 큰 수준임

- (정책제언)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이 상승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
 -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

- (정책제언)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식품 물가 관리는 국내 물가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
 - 둘째, 국내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제 농식품 물가의 국내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국내 농식품 물가의 급등 원인은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한 국제 농식품 가격의 급등임
 - 2022년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을 완화하고자 시행한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과 같이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영향이 작은 식품소재 품을 우선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농식품 생산원가의 많은 부분을 비농식품 투입재가 차지하여 중요한 농식품 물가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비농식품 투입재 가격변동으로 인한 생산원가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넷째, 다수 품목의 공급망에서 비대칭적인 가격전이가 검증되므로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 검토가 필요

2.6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가중치 30.6)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상하수도료,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가 존재
 -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중 공동주택관리비의 가중치는 21.8로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30.6)에 대부분을 차지함
-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크게 9가지로 구성되며, 구성항목으로는 인건비와 수선비로 구성됨
 - 관리비 항목: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 인건비 항목: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 수선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정화조, 물탱크 청소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관리비 공개의무단지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음
 - 전체 관리비는 2019년부터 우상향하는 추세이며, 2025년 2,988원으로 최고치를 달성

<표 18> 관리비 등 세부항목 전국 평균

단위: 원/㎡, 주거전용면적기준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용 관리비	1,138	1,169	1,197	1,242	1,300	1,343	1,370
개별 사용료	917	968	987	1,062	1,213	1,282	1,305
기타	190	210	232	251	273	295	313
합계	2,245	2,347	2,416	2,555	2,786	2,920	2,988

주1: 개별사용료 중 난방비 및 급탕비 값의 경우 중앙난방, 지역난방 외에 개별난방(난방비, 급탕비 “0”원) 단지의 값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유의

주2: 기타는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자료: 한국부동산원(2025)

- 관리비 공개의무단지의 관리비 규모는 2017년 17.2조원에서 2021년 22.9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금액임

<표 19> 관리비공개의무단지 연간 관리비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대수	9,040,119	9,500,016	9,931,631	10,299,793	10,604,072
관리비	17.2	18.7	20.0	21.7	22.9

자료: 한국부동산원(2022)

- 2021년 전체 관리비는 연간 22조 9,245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10조 7,801억원 (47.0%), 개별사용료는 10조 2,075억원(44.5%)으로 나타남

<표 20> 2021년 관리비 공개의무단지 관리비 구성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229,245	107,801	102,075	19,369
비율	100	47.0	44.5	8.5

자료: 한국부동산원(2022)

- 공용관리비 10조 7,801억원 중 일반관리비는 4조 3,437억원(40.3%), 청소비 1조

9,578억원(18.2%), 경비비 3조 2,991억원(30.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 1,795억원(10.9%)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성됨
-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가 공용관리비 전체 중 89.1%를 차지함

<표 21> 2021년 관리비공개 의무단지 공용관리비 구성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기타
금액	107,801	43,437	19,578	32,991	11,795
비율	100	40.3	18.2	30.6	10.9

자료: 한국부동산원(2022)

□ 개별사용료 10조 2,075억원 중 난방비는 1조 3,393억원(13.1%), 전기료 5조 3,403억원(52.3%), 수도료 2조 2,909억원(22.5%), 급탕비 7,639억원(7.5%) 기타비용(건물보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은 4,731억원(4.6%)인 것으로 나타남

- 개별사용료 중 전기료(52.3%)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주택용 전기 판매 단가는 2019년부터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3년 149.8 원/kWh으로 2019년 대비 42.7% 상승

<표 22> 관리비공개 의무단지 개별사용료 구성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급탕비	기타
금액	102,075	13,393	53,403	22,909	7,639	4,731
비율	100	13.1	52.3	22.5	7.5	4.6

자료: 한국부동산원(2022)

<표 23> 연도별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

단위: 원/kWh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주택용 전기 판매 단가	105.0	107.9	109.2	121.3	149.8

□ (정책제언)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관리비 구성 항목별 비용 절감의 방안(김용동, 2011)
 - 일반관리비: 경비인력 감축과 외주용역 계약 합리화 등을 이룰 필요
 - 청소비: 용역 시 용역단가의 합리화, 입주자 참여의 정기청소
 - 오물수거비: 각 세대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절감 방안으로 공동관리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절감 방안, 에너지 절감형 시설도입을 통한 관리비 절감을 제시함(김성희, 이학주, 2016)
 - 인근에 위치한 3개 단지의 공동관리를 수행한 결과 단독 관리에 비해 월평균 18천원, 기존 관리비 대비 43%의 관리비 절감효과가 발생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입주민의 관리비 보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사례의 경우 1세대당 연평균 4.1만원의 잡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60% 정도를 관리비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을 통해 공용전기료를 5~13%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비용은 국고 및 정부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해소

2.7 주거시설 유지·보수

□ 주거시설 유지·보수(가중치 9.3)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주택수선재료, 설비수리비가 존재

- 주거시설 유지·보수(9.3) 중 주택수선재료, 설비수리비의 가중치는 각각 3.4, 5.9
- 주거시설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승 주요 원인으로는 자재비 및 인건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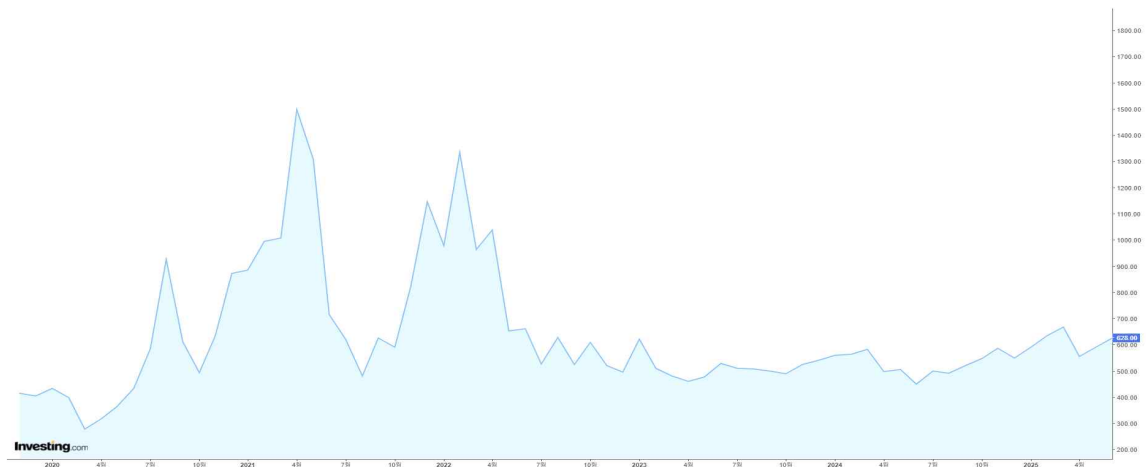
□ 자재비 항목

-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원유, 시멘트, 목재, 철근 등 기초 원자재가 존재함

- 인테리어 시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재 값 상승으로 인해 각종 토목공사 비용이 상승함
 - 2021년 4월 1,000보드피트 당 전년동월대비 1,182달러(369.4%) 상승한 1,502달러
 - 2022년 2월 1,000보드피트 당 전년동월대비 345달러(34.6%) 상승한 1,341달러
 - 2025년 6월 기준 1,000보드피트 당 629달러

<그림 9> 원목 가격 추이

단위: USD/1000b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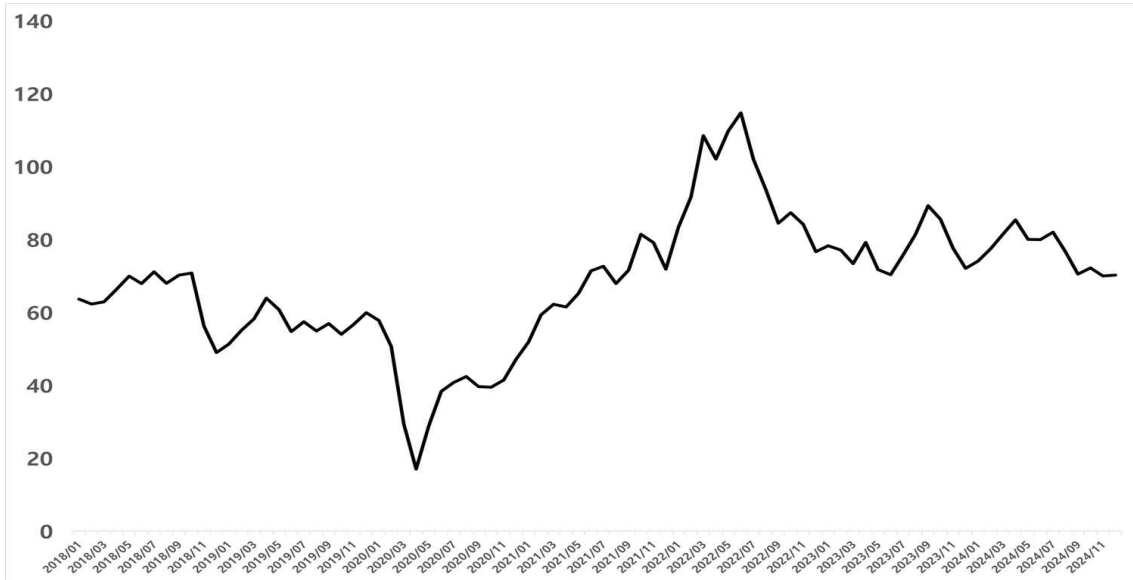


자료: 인베스팅 닷컴

- 창호와 페인트, 바닥재 등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 상승
 - 창호 원재료는 석유화학 제품인 PVC(폴리염화비닐), 페인트는 원유 정제 원료를 사용함
 - 유가는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배럴당 약 65달러 수준

<그림 10> WTI유가 가격 추이

단위: USD/bbl



자료: 한국은행

□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업종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타일공 일 평균 단가 2019년 199,848원에서 2025년 284,337원 약 42.3% 상승
- 창호공 일 평균 단가 2019년 187,530원에서 2025년 248,350원 약 32.4% 상승
- 도배공 일 평균 단가 2019년 165,558원에서 2025년 222,618원 약 34.5% 상승
- 소비자들은 경력 있는 인테리어 시공기사 인력을 선호하기에,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됨

<표 24> 연도별 인테리어 시공기사 임금 현황

단위: 원

직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타일공	199,848	210,086	230,160	247,079	258,576	274,325	284,337
창호공	187,530	195,972	205,617	224,380	236,675	248,238	248,350
도배공	165,558	169,575	179,138	192,426	205,156	215,675	222,618

주1: 1일 8시간 기준

주2: 공표일은 매 연도 초임

자료: 대한건설협회 보도자료 (연도별)

-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 연구는 다음과 같음(박선구 외, 2024)
 - 역사적으로 자재가격은 건설업 경기변동, 국제 정세, 원자재 시장, 금리와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음
 - 향후 건설자재시장은 이전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국지적 충동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점차 안정
 - 건설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일부 자재는 가격 하락세 예상
 -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전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압력이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최고 높을 정도로 아파트 거주 문화가 대세이며, 아파트 전용면적 59㎡, 84㎡등 비슷한 구조이기에 인테리어 시장이 발전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효과로 장기적으로 비용은 낮아질 수 있음
- (정책제언) 자재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자재별 가격인상 또는 인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합리적인 중재가 필요

2.8 음식 서비스

- 음식 서비스(가중치 138)는 중분류 항목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함
 - 총지수(1,000)를 고려할 때,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임
- 외식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구조
 -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식당의 매출(100)은 이익(12) + 영업비용(88)으로 구성되어있음
 - 영업비용은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세금 7%, 기타(수수

료 등) 8% 등으로 구성됨

○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그리고 배달 수수료가 음식 서비스 주요 상승 요인임

□ 마켓보로가 운영하는 외식 사업자 전용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에서 판매되는 8,325개 식자재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2025년 2월 기준 전체 식자재 가격이 2024년 대비 평균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식자재 중 66.5%(5,535개)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한식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짐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 사업자의 91.4%가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서울과 경기 지역 중심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집중되어 서울의 지수 상승세가 전국 지수 상승으로 이어짐

○ 임대료 변동 추세를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의 경우 전분기 대비 0.44% 상승, 상가의 경우 중대형 0.17% 하락, 소규모 0.34% 하락, 집합 0.22% 하락

<표 25> 분기별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동향

단위 : p, %

구 분	2023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기비	전년 동기비
오피스	97.2	97.5	97.8	98.1	99.1	100.0	100.7	101.3	101.7	0.44	2.71
상가통합	-	-	-	-	100.0	100.0	99.9	99.8	99.6	-0.21	-0.43
중대형 상가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8	99.7	-0.17	-0.29
소규모 상가	100.6	100.4	100.3	100.2	100.1	100.0	99.9	99.7	99.4	-0.34	-0.71
집합상가	100.3	100.2	100.2	100.1	100.0	100.0	99.9	99.7	99.5	-0.22	-0.59

주: 2024년 2분기 = 100

자료: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2025)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임대료가 높은 수준을 보임

- 서울 지역의 오피스(24.1), 중대형 상가(55.1), 소규모 상가(51.4), 집합 상가(48.9) 등 주요 상업용 부동산 유형은 전 구간에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표 26> 2025년 1분기 유형별·지역별 임대료

단위: 천원/m²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오피스	18.2	24.1	7.1	7.4	8.3	5.5	4.7	6.8	-
중대형 상가	26.5	55.1	30.1	21.9	25.1	21.7	18.8	16.6	15.8
소규모 상가	20.6	51.4	26.4	20.8	21.6	16.8	15.2	14.1	16.0
집합 상가	27.0	48.9	29.2	23.0	27.6	21.1	22.8	21.2	18.6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오피스	12.9	6.3	4.3	7.0	4.3	4.6	6.0	5.8	4.9
중대형 상가	26.9	15.0	17.2	14.5	14.3	12.7	12.9	15.8	15.1
소규모 상가	24.0	13.5	12.7	13.0	11.0	11.0	13.2	13.1	15.0
집합 상가	30.4	18.4	15.0	15.8	19.3	14.9	15.9	19.7	12.7

주1: 오피스는 3층~최고층, 상가(일반/집합)는 기준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매분기 마지막 월 말일 기준임

주2: 임대료는 현재 시점에서 임대가능한 금액을 월세형태로 전환하여 산정한 월환산 임대료임 (관리비 미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2025)

□ 외식업계 ‘이중 가격제’ 점차 확산 중

- 이중 가격제란 가게를 방문할 때보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때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
-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음식 가격이 매장 내 가격보다 평균 13% 더 상승한 수치가 나옴
- 외식 업계에서 배달 가격을 올린 건 높은 수수료 때문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달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음식값의 30% 부담이 과중
 - 대부분의 외식업계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

<표 27> 2025년 기준 배달 3사 수수료 및 광고비 현황

항목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광이츠
기본 수수료율	배민 오더: 약 6%	약 10~13%	약 15~20%
	배민1: 12~15% + 광고비 별도		
광고비	울트라콜 광고: 월 약 8~15만 원	슈퍼리스트 광고: 월 3~8만 원	광고 시스템 없음 (수수료 기반)
총 수수료 (광고 포함)	최대 15~20% 수준	평균 15~18% 수준	약 15~20%

- (정책제언)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수입선 확보, 공공요금 정상화 등 구조 개선 필요
- 외식 서비스에서 식재료비는 42%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충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고비용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팜 조성 등 농업의 자동화·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가운데 변동성이 높고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제한적인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소비 품종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손실, 생산 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2.9 비주류 음료

- 비주류 음료(가중치 9.7)는 커피, 차 및 코코아,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로 구분되며, 가중치는 각각 3.5, 6.2임
- 최근 일부 업체의 음료 가격 인상하고 관련하여, 당류, 알루미늄·페트(포장재) 등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물류비와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타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음료도 주요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에 민감하여, 내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 실적부진을 겪는 상황임

<표 28> 비주류 음료 가격 상승 주요 요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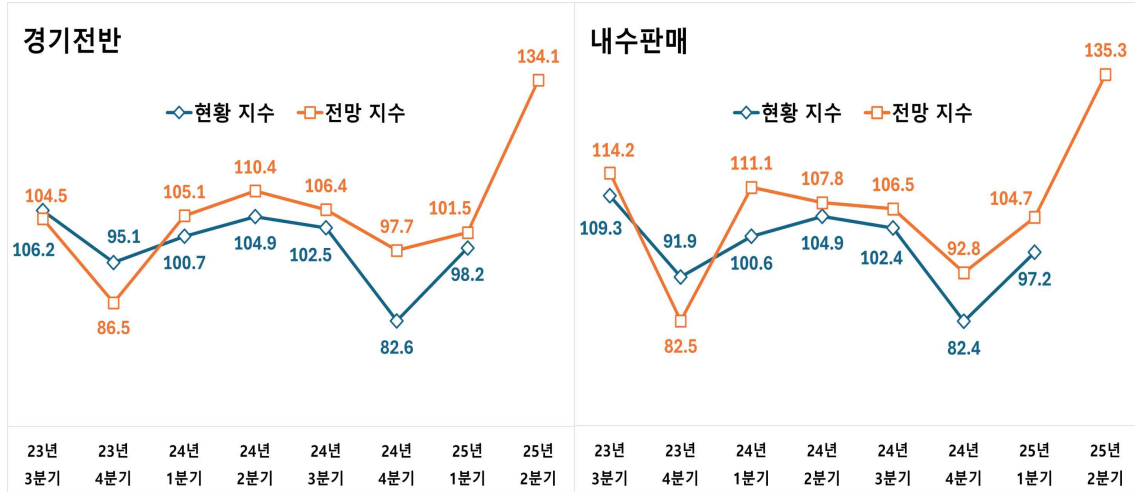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국내 결정과당(원/kg)	1,817	1,876	1,970
국제 알루미늄(\$/톤)	2,250	2,419	2,627
환율(원/\$)	1,308	1,367	1,422
최저임금(원/시간)	9,620	9,860	10,030

자료: 한국식품산업협회 보도자료(2025)

- 업계는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있음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06.28 ~ '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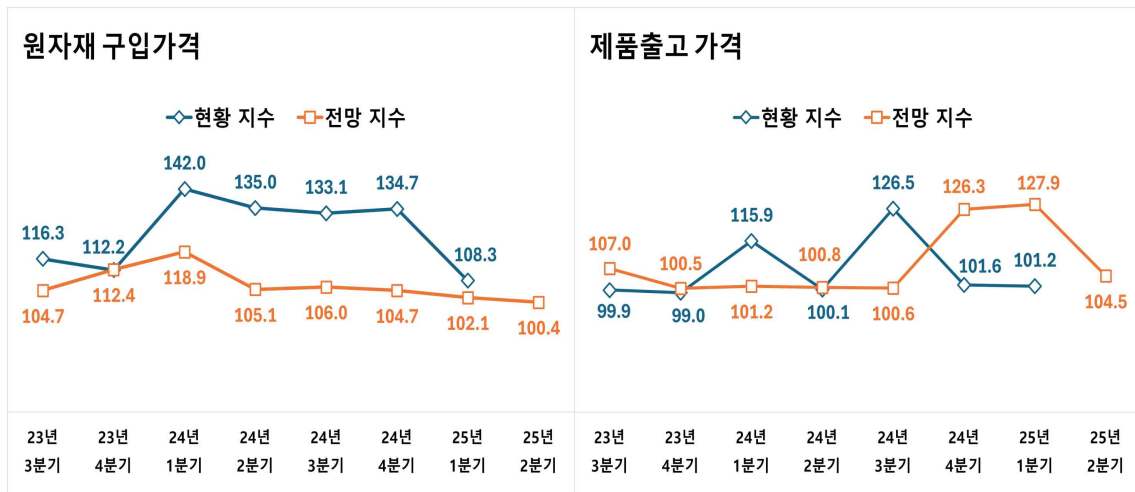
- 식품산업 경기지수는 식품산업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분기의 경기 지수는 '현 분기 체감경기' 및 '다음 분기 경기전망'을 나타내며, 지수는 0에서 200까지의 값으로 표현됨
 -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사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 63개의 비주류 음료 제조업체가 응답
 - 2025년 1분기 경기 현황지수는 98.2로 경기 악화 체감 사업체가 많으며, 2024년 4분기 감소 후 다시 상승
 - 악화사유 : '소비자의 소비량 감소(소비 패턴의 변화, 내수부진 등)'이 주된 원인
 - 내수판매(135.3)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내수판매 증가를 전망하는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격부문 : 원자재 구입가격(108.3), 제품 출고가격(101.2)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고, 원자재 구입가격 상승, 제품 출고가격 증가를 답한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환율 인상으로 원자재 구입가격 지수가 100을 상회한 것을 보임

<그림 11>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경기 현황, 전망 지수(좌), 내수판매 현황, 전망 지수(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5)

<그림 12>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원자재 구입가격 현황 및 전망 지수(좌) 제품 출고가격 현황, 전망지수(우)



주: 원자재 구입가격과 제품 출고가격 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경우는 전분기보다 원자재 구입가격과 제품 출고가격 상승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5)

□ (정책제언)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누적 식품물가 파급영향은 여타 요인의 영향에 비해 크며, 제분, 제당, 배합사료, 전분 및 당류 순으로 가공식품 물가상승 가공식품 기여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곡물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행 필요

- 2022년 1분기 국제 원재료 가격이 2년 전 동분기 대비 추가로 45~56% 상승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가공식품 물가는 업종·부류별로 2.0~21.8%의 상승 요

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상승 요인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공식품 물가상승 요인보다 큰 수준임
-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곡물 시장 위기는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 영향이 매우 크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더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곡물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행 필요

2.10 숙박 서비스

- 숙박 서비스(가중치 6.7)의 가격(호텔, 모텔, 펜션 등)은 최근 전체 물가 상승세보다 높음
 - 숙박 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5년 5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함
 - 평균객실요금(ADR)은 전년 동기 대비 2.1% 오르면서도 객실 점유율(OCC)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11.2%) 결과적으로 객실당 매출(RevPAR)은 9.4% 감소함(서현진, 2025)
 - 가격 인상과 수요 둔화가 공존하여 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5성급 등 고급 호텔의 객실 이용률은 팬데믹 이전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평균 요금은 2019년 대비 31% 상승함
- 숙박 서비스의 경우 전기 및 가스,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급등이 주요 원인임
 - 2023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KWh당 8.0원, 도시가스는 MJ당 1.04원이 인상됨
 - 숙박 서비스는 매출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60% 이상으로 전기, 가스 요금 부담 증가에 민감함
 - 실제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 가스 외로도 인건비, 임대료, OTA 수수료 등 고정비가 늘면 객실이 만실이어도 적자인 상황이라 숙박 서비스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음

□ 숙박 서비스 공급 및 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내 숙박시장은 모텔, 펜션 등 실속형 숙소 증가율이 높아 전체 공급은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 고급 호텔은 대도시 중심으로 포화 상태임(로빈, 2025); 야놀자리서치)
 - 최근 2025년 1분기 실적에서도 저가, 저성능 숙소 수요가 견조하여 1~2성급 호텔과 펜션의 객실당 매출은 58% 증가한 반면, 5성급 등 고급 숙소는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함

□ 숙박 서비스 운영 비용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부담이 큼

-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비, OTA(온라인여행사) 수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 국내 주요 OTA들은 건당 10~20%대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큼
 - 숙박시설 건물주와 위탁 운영 주체가 분리된 형태가 많아 임대료 부담이 크고,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 숙박시설 등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강도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정책제언) 숙박 서비스 가격 안정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정부 및 업계는 OTA 수수료 자율규제를 통한 비용 완화와 계약 관행 개선을 추진 중임
 - 2024년 9월 부처 합동 발표에 따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거래규모 하위 40% 소상공인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10%에서 9%로 1%p 완화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한다고 함(이도윤, 2024)
 - 해외 OTA들과의 제휴 서비스도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숙박시설 에너지 비용 지원(고효율 설비 보급 확대) 등 공공요금 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음
 - 숙박요금 할인 캠페인 (관광할인쿠폰) 등 소비자 수요 촉진 정책도 같이 시행 하고 있음
- 업계 내부에서도 숙박요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약채널 다변화, 패키지 상품 개발, 비수기 프로모션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해외여행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숙박비 부담을 낮추려면, 공정한 수수료 구조 마련 (OTA 요금 인하), 임대료 부담 완화(상하수도 및 재산세 감면 확대), 인건비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숙박 서비스의 물가지수는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됨

2.11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가중치 25.9)는 이미용 및 미용시설,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으로 구분되며, 가중치는 각각 11, 14.9임
 - 이미용 및 미용시설 항목에는 목욕료, 미용료 등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며,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항목에는 면도기, 샴푸, 화장품 등 미용 관련 제품 포함
- 남성 미용료, 여성 미용료, 목욕료 모두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5년 각각 12,538원, 23,462원, 10,615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 8.5%, 4.5% 상승
 - 2020년 남성 미용료 10,462원 → 2025년 남성 미용료 13,538원(19.8%)
 - 2020년 여성 미용료 17,308원 → 2025년 여성 미용료 23,462원(35.6%)
 - 2020년 목욕료 7,231원 → 2025년 목욕료 10,615원(46.8%)

<표 29> 연도별 미용료, 목욕료 평균 요금 추이

단위: 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남성 미용료 (커트)	10,462	10,462	10,923	11,615	12,308	12,538
여성 미용료 (커트)	17,308	18,308	18,462	21,154	21,615	23,462
목욕료 (성인)	7,231	7,385	7,846	8,923	10,154	10,615

주1: 연도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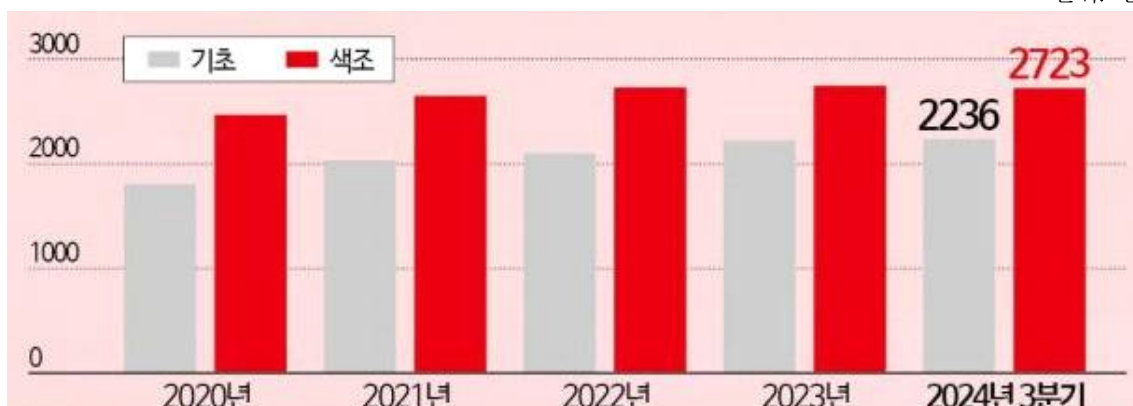
주2: 서울 기준 가격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5)

- 미용업계에 따르면 재료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
 - 파마·염색제, 샴푸 등 포함되는 생활용품(15개)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6.0% 상승
 - 공공요금(전기, 수도)을 비롯한 인건비 또한 상승했으며, 특히 인건비는 서비스업 중심의 미용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목욕료에 경우 전기·가스 및 연료비 인상이 주요 요인임
 - 목욕탕 업소는 매출에서 연료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고,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손님이 없더라도 탕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담이 큼
- 미용용품 중 화장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원재료보단 부자재, 마케팅 비용으로 나뉨
 - 화장품 가격은 원가 10~20%, 부자재 30%, 마케팅 비용 50%로 구성되며, 원가는 화장품위탁생산업체의 공장 출고가격임
 - 2024년 3분기 기초제품 가격은 2,236원으로 전년대비 13원 상승
 - 2024년 3분기 색조제품 가격은 2,723원으로 전년대비 20원 하락
 - 원재료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아,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 방어를 위해 제품 가격 인상을 했을 가능성 존재

〈그림 13〉 화장품 제조업체 원가 추이

단위: 원



자료: 이민지(2025.1.9), 코스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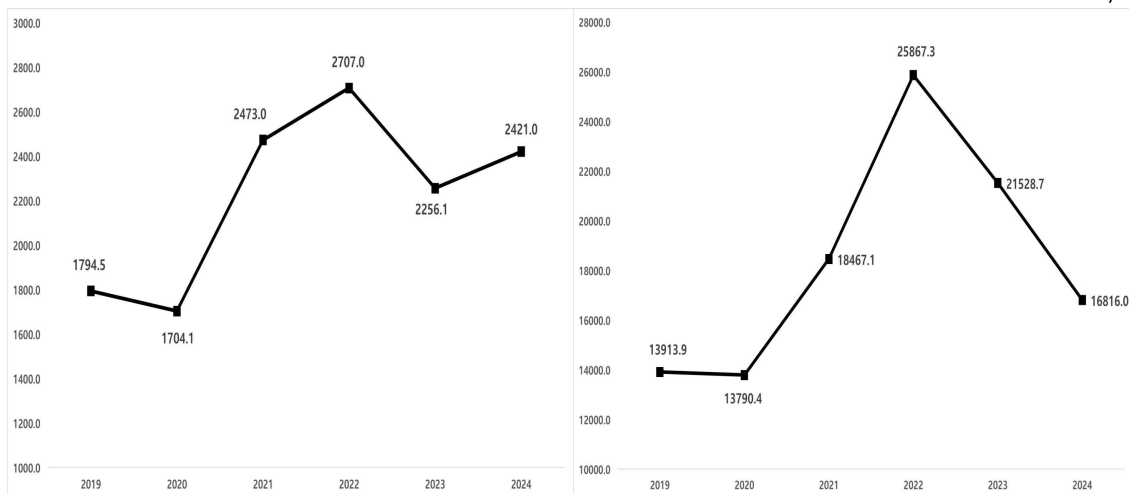
2.12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가중치 4.0)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식기, 컵, 숟, 프라이팬, 냄비, 수저, 밀폐용기, 부엌용 공구가 존재
 -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4.0) 중 가중치별로 구분하면 식기(0.8) 밀폐용기(0.7), 프라이팬(0.6), 냄비(0.5), 컵(0.5), 부엌용 공구(0.4), 수저(0.3) 숟(0.2) 순서
 - 2024년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2024년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는 식기 120.31(-0.8%) 밀폐용기 123.43(-2.3%), 프라이팬 117.77(0.0%), 냄비 118.27(0.5%), 컵 103.72(-0.4%), 부엌용 공구 116.11(-1.1), 수저 109.74(0.7) 숟 117.77(-0.5)
-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물가 상승 요인은 원자재 가격 급등, 제조비용 증가, 수요 증가, 유통 마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물류비,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 상승
 - 예를 들어 도자 브랜드 '광주요'는 재료비, 인건비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
 - 코로나19와 미식 문화 확산으로 요리 관련 방송 및 SNS 채널이 인기를 얻으면서 홈쿡 및 간편식 트렌드 확산
 - 이로 인한 가정용 조리용품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
 - 유통채널과 선호 브랜드의 높은 마케팅비용과 재고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온라인 쇼핑 확산과 고객 할인 요구 증가로 전통 소매마진이 감소하는 반면, 물류·마케팅 비용 부담은 커져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
 - 따라서 유통단계에서 마진이 축적되거나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
 - 주방용품의 주원료인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등 금속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프라이팬(알루미늄) 가격이 12.6%, 밀폐용기가 10.8% 등으로 급등함

- 조리기기, 용기류 등 주요 주방용품 가격도 원자재 상승분이 반영
- 2024년 알루미늄 가격 1톤 당 전년동월대비 164.9달러(7.3%) 상승한 2,420.9 달러
- 스테인리스강의 주 재료인 니켈은 2024년 1톤 당 전년동월대비 4712.7달러 (21.9%) 하락한 16,816.0달러

<그림 14> 알루미늄 가격 추이(좌)와 니켈 가격 추이(우)

단위: 달러/T



자료: 한국은행

- (정책제언)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가격 안정 정책 현황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주요 품목별 물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강구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음
 - 고유가,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 소비자 할인 지원 등이 필요
 - 제조업체들은 공정개선과 원가 절감 노력 강화 필요
 - 현재 제조업체들은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여 불필요한 원자재 낭비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한편, 친환경 및 첨단 소재 개발 등 기술 혁신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음
 - 불필요한 원자재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기업도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개선 컨설팅과 설비 및 디지털화 지원 확대도 검토되고 있음
 - 유통단계를 간소화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전략 필요

- 예를 들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사에서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1.77%였지만 쿠팡 주요 40개 PB 가 공식품 가격은 평균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PB가 물가 억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이와 함께 유통 및 물류 혁신(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활용)으로 유통마진을 줄이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동반성장 모델 구축도 제안되고 있음

2.13 운송 서비스

- 운송 서비스(가중치 21.9)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택시, 도로 여객수송, 국제항공료, 이삿짐운송료, 시내버스료 등이 존재
 - 운송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5년 5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함
 - 통계청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등 연료비 급등과 공급제한에 따른 수요증가, 할증제 도입들이 주요 원인임
 -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인하여 연료비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도 운임 인상을 하여 물가가 더 올라간 것으로 분석됨
- 운송 서비스의 경우 전기 및 가스 비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등 고정비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운송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임
 - 2023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KWh당 8.0원, 도시가스는 MJ당 1.04원이 인상되었고 통계청에 따르면 휘발유는 8.2%, 경유는 12.9%가 인상되었음
 - 운송 서비스는 매출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매우 높아 전기, 가스, 유류 요금 부담 증가에 민감함
 -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의 경우 심야할증 도입 및 기본요금 (1,000원 상향) 등의 요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택배 이용료의 경우 2025년 5월 기준 전월 대비 10.3% 상승하였음(서울연구원, 2022)
- 운송 서비스 공급 및 수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택시와 항공기의 경우 공급 제한이 있지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다만 특정 시간이나 날짜를 제외한 다른 시간대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날이 있기에 공급 제한을 해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택배서비스의 경우 2024년 국내 택배 물동량이 약 59억 6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함(이도운, 2025)
 - 코로나 이후 온라인 소비 확대, 이커머스 간 경쟁에 따른 초저가 빠른배송 서비스 강화 등이 원인임

□ (정책제언) 운송 서비스 가격 안정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택시요금의 경우 인상을 완화하고자 택시기사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 필요
- 택배비 안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전담 조직인 노사 물류 인프라 확충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구성 필요
 - 구성 후 택배기사 운송 보조금 확대, 배송환경 개선(분류, 집하 자동화) 등으로 물류비 경감 모색 필요
- 운송서비스의 경우 연료비 변동 추세 관찰과 대체 에너지 도입 확대를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운영 개선 및 택시 확대 등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해야 함

2.14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가중치 3.1)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보일러, 건전지, 소형가사용품이 존재
-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3.1) 중 보일러, 건전지, 소형가사용품의 가중치는 각각 1.5, 0.3, 1.3
 - 2024년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82로 전년동월 대비 2.3% 상승
 - 2024년 보일러, 건전지의 지수는 각각 120.35, 132.03으로 전년동월대비 2.8%, 6.3% 상승

-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는 대부분의 원자재가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의 금속 자원으로 구성되어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보일러의 경우 원자재인 알루미늄과 구리와 같은 금속 자원의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정책과 환경 규제로 인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보일러의 생산 증가로 인하여 원자재 사용량이 많아짐
 - 정용철(2022)에 따르면 21년 3분기까지 주요 원자재 매입 비용이 전년대비 30.3% 증가
 - 2021년 3분기 기준 전년동월대비 배관용 강철은 12,505원(72%) 상승한 29,856원, 코일용 철판은 1,365원(82%) 상승한 742원, 일반 철판은 638원(86%) 상승한 1,380원으로 원재재값 인상으로 인한 보일러 제조원가 상승
 - 2024년 구리 가격 1톤 당 전년동월대비 651.3달러(7.7%) 상승한 9,142.1달러
 - 2024년 알루미늄 가격 1톤 당 전년동월대비 164.9달러(7.3%) 상승한 2,420.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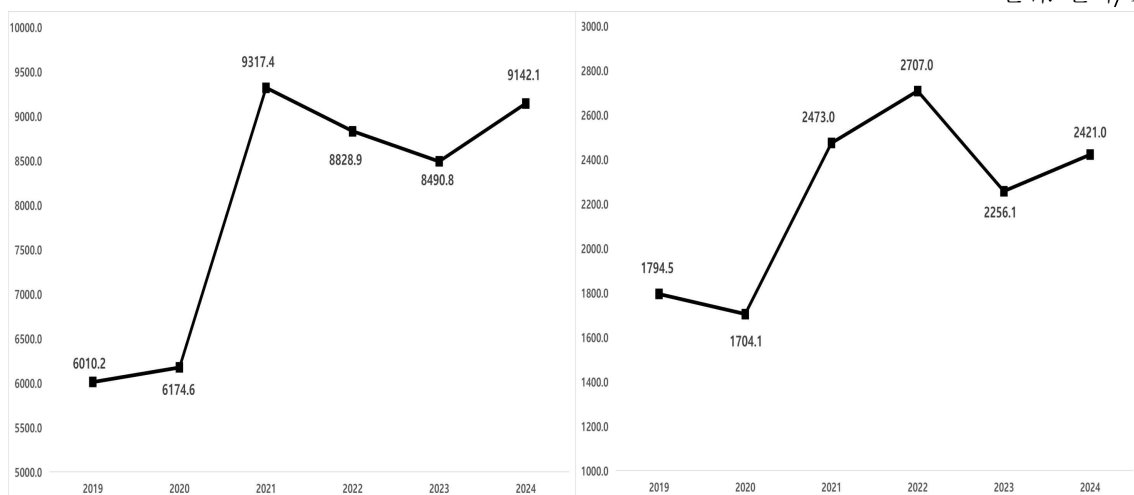
<표 30> 주요 보일러 원자재 가격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상승률
배관용 강철	17,351원	29,856원	72%
코일철판	749원	1,365원	82%
철판	742원	1,380원	86%

자료: 전자신문(2022)

<그림 15> 구리 가격 추이(좌)와 알루미늄 가격 추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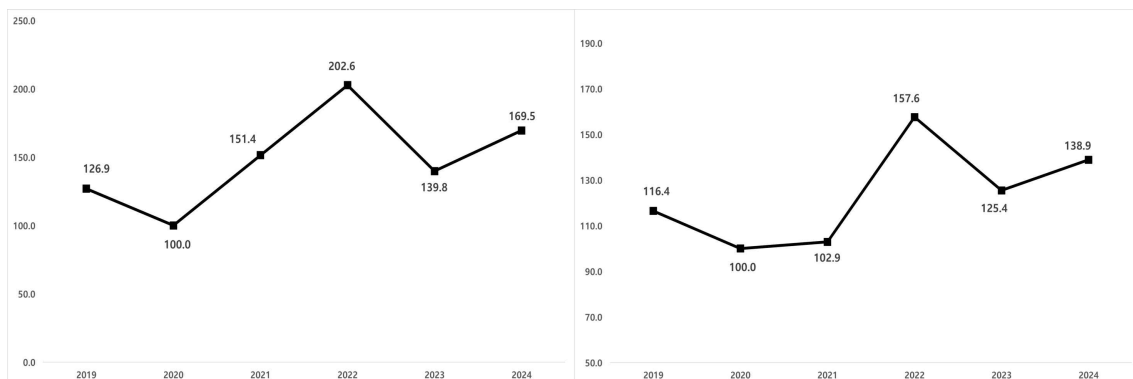
단위: 달러/T



자료: 한국은행

- 건전지의 경우 원자재인 니켈, 아연, 망간 등의 금속과 알카라인 전해액이 쓰이며 원자재 및 화학약품의 비용이 인상되면 판매가격에 반영됨
 - 국내 건전지의 대부분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 공급 불안정이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일반 건전지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9%~10% 가량 오르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2차전지 수요 급증으로 리튬·니켈 등 광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 2024년 아연광석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7(21.3%) 상승한 169.5
 - 2024년 망간광석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4(10.7%) 상승한 138.9
 - 2024년 니켈 가격 1톤 당 전년동월대비 4712.7달러(21.9%) 하락한 21,528.7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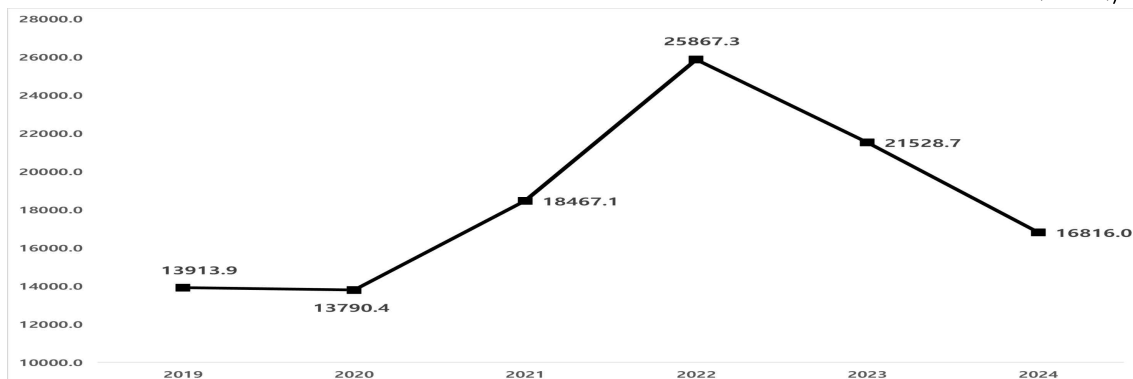
<그림 16> 아연광석 수입물가지수 추이(좌)와 망간광석 수입물가지수 추이(우)



주1: 통화계약은 원화를 기준으로 함
 주2: 단위는 2020=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7> 니켈 가격 추이

단위: 달러/T



자료: 한국은행

□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존재하지만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취약계층으로 좁혀짐
 -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도모했으나, 보편적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일반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보일러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 발생
- 배터리의 경우 광물 수급 안정과 물가 변동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 아직 미흡하여 변동성에 따른 가격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정책제언)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가격 안정 및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5월 정부는 제조·유통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함
 - 이와 함께 가격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가전·내구제품 물가동향을 주시하고 2023년 11월 대한상의에서 가전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가격 인하 노력(연말 할인 행사 등)을 독려
-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원료 비축과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2026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확대해 사용 후 배터리 회수·재활용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해외 재활용자원 공급처 확보, 규제 완화, 배터리 소재·분리 기술 개발 등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산업계의 경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할인행사 및 비용절감 노력을 병행함
 -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할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있고 제조업체는 AI 및 빅데이터 도입과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보일러 업체들도 신제품 개발 및 고효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원가 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15 의류

- 의류(가중치 42.1)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남자의류, 여자의류, 캐주얼의류, 아동복·유아복, 기타 의류 및 의류 장신구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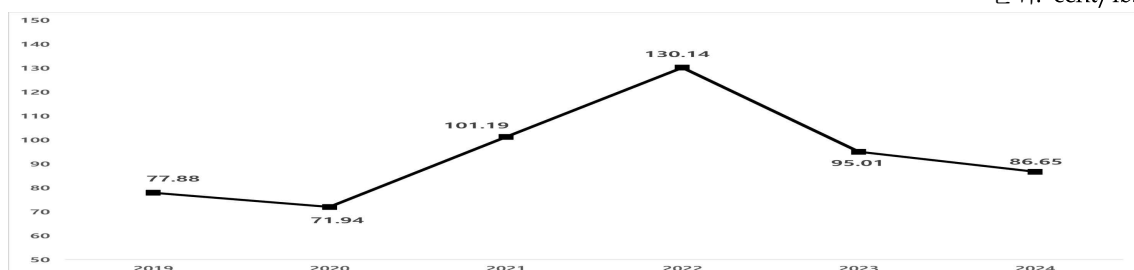
- 의류(42.1) 중 가중치별로 구분하면 여자의류(13.7), 캐주얼의류(12.9), 아동복·유아복(4.6), 남자의류 (7.9), 기타의류 및 장신구(1.7) 순서로 구성
 - 2024년 의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3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2024년 의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는 남자의류 115.26(5.3%), 여자의류 112.38(4.1%), 캐주얼의류 115.80(2.4%), 아동복·유아복 117.60(3.2%), 기타의류 및 의류 장신구 111.35(3.6%)로 상승

□ 의류는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고비용 유통채널의 높은 비중으로 인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됨

- 통계청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해외 면화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통 채널과 선호 브랜드의 높은 마케팅비용과 재고비용, 그리고 인건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원면 가격 1파운드 당 전년동월대비 8.3센트(8.8%) 하락한 86.7센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의류원자재 가격 변동, 국제 운임·유류비, 환율 변화 등이 국내 의류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
 - 온라인 쇼핑 확산과 고객 할인 요구 증가로 전통 소매마진이 감소하는 반면, 물류·마케팅 비용 부담은 커져 의류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
- 소비자 브랜드 선호와 SPA(제조 및 직매형) 의류의 가격 책정 방식을 의류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 국내 소비자는 수입브랜드 선호도가 높아 평균 판매가격이 주요국 대비 높으며, SPA 업체들은 재고 감소를 위해 할인 폭을 줄여 가격 상승률이 확대되었다고 분석

<그림 18> 면화 가격 추이

단위: cent/lbs



자료: 한국은행

□ 의류 물가 현황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임

-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의류 가격은 OECD 평균의 약 1.5배에 달함
 - 2021~2023년 의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23년 또한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임

□ (정책제언) 의류 가격 안정 정책 현황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의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 유통구조 개선, 품질 대비 가격조사 강화 등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의류 분야를 비롯한 필수재 가격 문제는 단기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통비용 절감, 관세 인하 등 구조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24년 8월 발표한 전략에서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 친환경 전환, AI·디지털 기술 확산 등 4대 전략을 제시
 - 특히 의류제조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장수요를 AI로 예측하여 디자인·생산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염색·가공 기술 개발 및 폐의류 재활용 기술을 지원하여 원가 부담을 낮추는 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의 경우 2024년 물가안정TF를 운영하며 의류 등 가격불안 품목을 대상으로 재고 관리, 수급 점검, 수입 확대들을 고려 중
 - 2025년의 경우 가격·수급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대응책으로 관세 인하, 공정거래 감독 강화 등이 있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협력업체 공동구매, 생산 프로세스 자동화, 친환경 공정 전환, 온라인·리세일 시장 확대 등 구조 혁신 방안을 제시
 - 특히 공공기관과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한 리사이클 의류 활성화 정책이 의류 공급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언급됨

2.16 단체여행

□ 단체여행(가중치 7.5)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국내단체여행비, 해외단체여행비가 존재

- 단체여행(7.5) 중 가중치별로 구분하면 해외단체여행비(5.5), 국내단체여행비(2.0) 순서로 구성

- 2024년 단체여행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75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
- 2024년 단체여행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는 국내단체여행비 124.15(0.0%)로 유지하였고 해외단체여행비는 111.84(0.7%)로 상승

□ 단체여행 물가 현황을 보면 최근 다소 감소

- 1회당 여행비용은 2019년 기준 21.19만원이었으나 2022년 26.03만원까지 상승하였고, 2024년에는 23.25만원으로 다소 감소(컨슈머인사이트, 2024)
 -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여행비 지출은 감소한 결과로, 최근 저비용, 근거리, 단기간 여행 수요 증가의 영향을 받음
 - 인터파크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판매된 패키지의 45%가 개인 자유시간을 더한 형태이며 자유일정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도 비용 감소에 영향을 줌

□ 단체여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료와 숙박비의 급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됨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해외단체여행비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9로, 전년 동월 대비 15.9% 상승해 2010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코로나19 이후 항공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오르며 유류할증료 부담이 늘었고, 현지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및 숙박비, 식비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됨
 - 실제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항공권, 숙박비 등이 30% 넘게 오른 곳도 많다고 분석(신익수, 2024)
- 패키지 여행의 트렌드 변화로 소규모 프리미엄 상품과 '노쇼핑'(쇼핑 제외) 상품이 늘면서 단가가 상승했고, 2023년 해외 패키지 상품 중 프리미엄 비중이 전년대비 4~5배까지 상승함
 - 다만 국내단체여행비의 경우 2022년 폭증했던 국내 여행비 부담의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2023년 6월 이후 물가지수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 결과적으로 해외 여행 수요 폭증과 물가 인상으로 인한 해외 단체여행비 가격 인상은 심각한 반면, 국내에서는 이미 고비용 기조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

□ (정책제언) 단체여행 가격 안정 정책 현황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관광 혁신 전략을 통해 국제선 항공 및 크루즈 노선 확충, 지역 관광 교통 연계망 구축 등을 진행
- 국내 관광산업은 온라인 중심의 개별 자유여행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전통적인 대규모 패키지 유통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여행유통 구조 개편을 추진해 비용구조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여행사는 디지털 채널과 직판 강화, 글로벌 OTA와의 협업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또한 더 나아가 OTA와 전통여행사를 연결하는 슈퍼앱 구축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됨
- 해외 단체여행객의 경우 급격한 환율 및 현지물가 변화 등으로 피해 우려 있음
 - 여행자 보험 가입, 위약금 규정 명확화 등 기본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사전 정보 제공 및 분쟁해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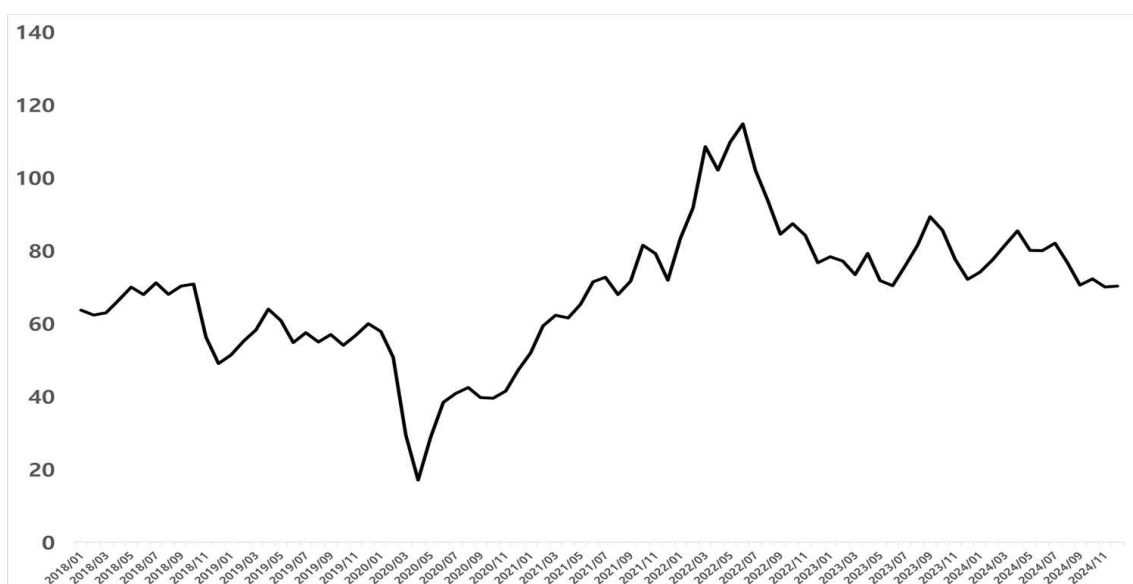
2.17 개인운송장비운영

- 개인운송장비운영(가중치 60.3)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가 존재
 - 개인운송장비운영(60.3) 중 가중치별로 구분하면 휘발유(24.1), 경유(16.3), 자동차용 LPG(2.8) 순서로 구성
 - 2024년 개인운송장비운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2024년 개인운송장비운영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는 자동차용 LPG 125.76(4.1%), 휘발유 118.4(0.1%)는 상승하였지만 경유 125.43(3.7%)는 하락
- 개인운송장비운영 물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629.8만대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휘발유차(1,242만대), 경유차(910만대), LPG차(185만대), 하이브리드(202만대), 전기차(68만대) 등 연료별 분포를 보임
 - 내연기관차는 총 2,337만대로 1.2% 감소하였지만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록대수는 275만대로 전년 대비 63만대 증가하여 전체 10.4%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운송 수단 보유 현황은 소비자 물가의 수요 측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친환경차 확대는 장기적으로 유류 수요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개인운송장비운영 물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 가격 상승은 국제시장 요인과 국내 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이 상승함
 - 다만 국제유가가 하락하던 시기에도, 국내 기름값은 유류세 조정과 환율 변동 등의 요인으로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음
 - 예를 들어 2024년 연간 기준 석유류 가격은 전년대비 1.1% 하락에 그쳐 이

- 는 국제유가 하락폭 축소와 탄력세율 인하폭 축소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2024년 말 이후 원화 약세로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수입 원유를 원화로 구매할 때 부담이 커졌고, 이 영향은 유류 소매가격에 빠르게 반영됨
 -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였으며, 휘발유 9.2%, 경유 5.7%로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자동차용 LPG는 8.9% 급등함
 - 한국의 유류세는 교통환경세 및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가격의 약 57% 수준이 세금임
 - 교통환경세의 경우 휘발유 리터 당 526원, 경유 리터당 449원 수준
 - 고유가에 대응하여 2021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나, 인하폭과 적용기간을 수차례 조정
 - 소비자 가격 상승폭은 국제유가 변동폭보다 줄어들었지만, 인하 효과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휘발유와 경유의 원자재인 원유는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배럴당 약 65달러 수준

<그림 19> WTI유가 가격 추이

단위: USD/b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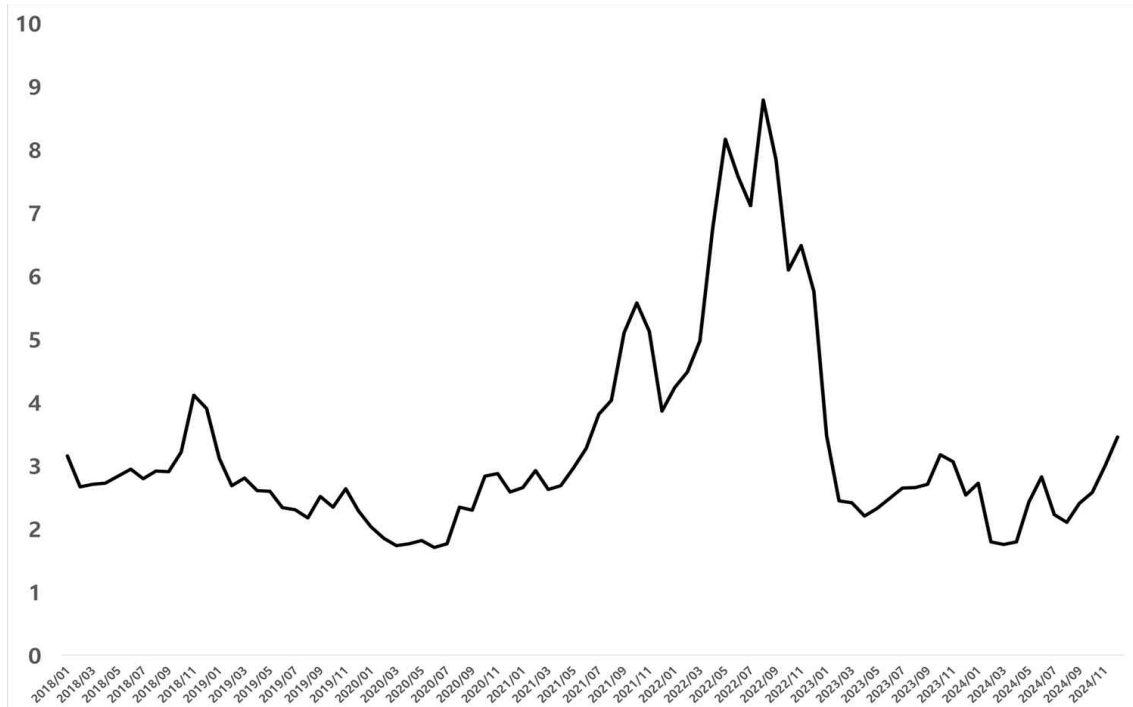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9월 100만 BTU당 전년동월대비 3.4달러(136.0%) 상승한 5.9달러
- 2022년 8월 100만 BTU당 전년동월대비 4.7달러(106.8%) 상승한 9.1달러

<그림 20> 천연가스 현물가격 추이

단위: USD/MMBtu



자료: 한국은행

- (정책제언) 개인운송장비운영 가격 안정 정책 현황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낮추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2025년 2월 기준으로도 15개월째 연장하여 휘발유 15%, 경유 23% 인하율을 유지
 - 화물용 및 영업용 차량에 연료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서민, 영세사업자에게 연료쿠폰을 지급하는 방안 등 거론되고 있음
 - 정유업계는 국제 원유 및 정제마진 상승분을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통구조 투명화를 강화하고, 알뜰주유소 확대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제시
 -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으로 주목

- 전기차 및 수소차 확대는 운송용 연료 수요를 줄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 친환경차 비중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연료 소비 패턴에도 변화 예상
- 정부는 물가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석유공급 안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음
 - 비축유 활용 방안 검토, 석유시장 점검회의 및 긴급점검반 운영, 알뜰주유소 확대 지원 등이 있으며 실제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40원 이상 저렴하게 유지
- 지자체의 경우 차량 운행 제한, 유류비 지원, 지역난방 확대 등 교통과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민간에서는 석유 업계가 정부와 협력해 가격 안정에 동참하여 정유 및 주유소의 자발적 마진 인하, 주유소 실거래가 공개 등을 강화해가고 있음

3. 소비자물가지수 항목별 CAGR 현황

- 2018년~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별로 CAGR을 산출하여 상위 20개 품목 선정
- <표 5>, <표 6>에 따르면 식료품,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배: (18년) 14.8% → (19년) 12.3% → (20년) 16.2% → (21년) 10.7% → (22년) 25.6% → (23년) 71.8%
 - 꿀: (18년) 10.5% → (19년) 14.8% → (20년) 20.6% → (21년) 26.7% → (22년) 32.0% → (23년) 46.2%
 - 기타연료 및 에너지: (18년) 8.1% → (19년) 9.3% → (20년) 13.1% → (21년) 15.7% → (22년) 5.5% → (23년) 2.9%
 - 지역 난방비: (18년) 8.1% → (19년) 9.4% → (20년) 11.7% → (21년) 16.4% → (22년) 18.6% → (23년) 10.5%
 - 보험서비스료: (18년) 10.4% → (19년) 11.9% → (20년) 12.9% → (21년) 14.3% → (22년) 14.3% → (23년) 15.8%

<표 31> 소비자물가지수 2018-2020년 기준 CAGR 상위 20개 품목

단위: %

계정항목	2018년 기준 CAGR	계정항목	2019년 기준 CAGR	계정항목	2020년 기준 CAGR
배	14.8	굴	14.8	굴	20.6
굴	10.5	소금	12.4	배	16.2
보험 서비스료	10.4	배	12.3	소금	15.1
소금	10.3	사과	12.3	식용유	15.0
사과	9.9	보험 서비스료	11.9	복숭아	13.8
부추	9.5	부추	11.8	사과	13.4
식용유지	9.1	식용유	11.4	기타연료 및 에너지	13.1
식용유	9.1	당근	11.0	보험 서비스료	12.9
복숭아	8.9	배추	11.0	식용유지	12.6
열무	8.9	복숭아	10.9	수박	12.4
참기름	8.8	식용유지	10.8	등유	12.1
오이	8.7	호박	10.6	지역 난방비	11.7
토마토	8.6	토마토	10.6	오이	11.6
풋고추	8.2	풋고추	10.2	잼	11.5
기타연료 및 에너지	8.1	양배추	10.1	국수	11.3
지역 난방비	8.1	감	9.9	감	11.3
감	8.0	오이	9.8	컴퓨터 수리비	10.9
잼	7.9	시금치	9.7	과일	10.8
당근	7.7	파	9.6	드레싱	10.7
싱크대	7.6	잼	9.6	장갑	10.2

주1: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주2: 2018년 기준 CAGR 평균은 2.9

주3: 2019년 기준 CAGR 평균은 3.3

주4: 2020년 기준 CAGR 평균은 3.7

자료: 통계청

<표 32> 소비자물가지수 2021~2023년 기준 CAGR 상위 20개 품목

단위: %

계정항목	2021년 기준 CAGR	계정항목	2022년 기준 CAGR	계정항목	2023년 기준 CAGR
굴	26.7	굴	32.0	배	71.9
당근	22.0	생강	27.9	굴	46.2
식용유	16.8	사과	27.1	감	36.6
지역 난방비	16.4	배	25.6	사과	30.2
기타연료 및 에너지	15.7	당근	24.9	컴퓨터 수리비	30.1
소금	15.5	지역 난방비	18.6	배추	25.0
무	15.5	토마토	16.2	무	24.5
식용유지	14.5	컴퓨터 수리비	15.3	김	21.8
보험 서비스료	14.3	보험 서비스료	14.3	토마토	21.0
토마토	14.0	장갑	13.7	당근	20.9
도시가스	14.0	김	13.6	과일	16.1
가스	13.4	풋고추	13.5	보험 서비스료	15.8
배추	13.2	도시가스	13.1	섬유 유연제	15.4
장갑	13.2	설탕	13.0	보리쌀	14.9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13.2	과일	12.8	호박	14.5
등유	12.9	드레싱	12.7	열무	14.0
설탕	12.8	초콜릿	12.5	브로콜리	13.9
생강	12.7	복숭아	12.4	복숭아	13.1
잼	12.3	소금	12.3	모발 염색약	12.1
풋고추	12.2	가스	12.1	풋고추	12.1

주1: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주2: 2021년 기준 CAGR 평균은 4.3

주3: 2022년 기준 CAGR 평균은 3.8

주4: 2023년 기준 CAGR 평균은 2.9

자료: 통계청

4.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별 CAGR 현황

□ <표 7>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가중치가 큰 품목 10개를 선정한 표임

- 자가주거비의 가중치가 257.6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지며, 그 뒤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171.6), 음식 및 숙박(144.7) 등이 있음

<표 33>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별 상위 품목

단위: %

계정항목	가중치	2018년 기준 CAGR	2019년 기준 CAGR	2020년 기준 CAGR	2021년 기준 CAGR	2022년 기준 CAGR	2023년 기준 CAGR
자가주거비	257.6	0.7	0.8	1.0	0.9	0.4	0.2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171.6	2.6	2.9	3.4	4.1	3.4	1.7
음식 및 숙박	144.7	3.7	4.0	4.8	5.5	4.5	3.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42.0	4.3	5.1	5.3	5.1	4.7	3.9
음식서비스	138.0	3.7	4.0	4.9	5.6	4.5	3.1
교통	110.6	1.6	2.3	3.4	2.4	-1.0	1.4
주택임차료	99.1	0.7	0.8	1.0	0.9	0.4	0.2
보건	84.0	1.0	1.2	1.1	1.5	1.8	1.9
교육	73.9	0.7	0.7	1.5	1.7	1.8	1.7
오락 및 문화	62.9	1.2	1.5	2.1	2.6	2.5	1.4

주: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지수 특이 품목 CAGR 현황

-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대기업이 주도하는 품목 7개를 선정하여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산출하였음
- 우유, 치즈 및 계란: (18년) 4.8% → (19년) 5.3% → (20년) 6.1% → (21년) 4.3% → (22년) 5.1% → (23년) 3.0%
 - 소주(외식): (18년) 2.8% → (19년) 3.1% → (20년) 3.7% → (21년) 4.8% → (22년) 4.1% → (23년) 0.9%
 - 라면: (18년) 2.7% → (19년) 3.3% → (20년) 4.2% → (21년) 4.5% → (22년) 2.0% → (23년) -3.4%
 - 맥주(외식): (18년) 3.4% → (19년) 3.6% → (20년) 4.2% → (21년) 5.4% → (22년) 4.9% → (23년) 2.9%
 - 탄산음료: (18년) 3.1% → (19년) 3.5% → (20년) 3.1% → (21년) 2.5% → (22년) 0.5% → (23년) -1.7%
 - 햄 및 베이컨: (18년) 2.8% → (19년) 3.8% → (20년) 3.6% → (21년) 3.2% → (22년) 0.7% → (23년) -1.1%
 - 통신: (18년) -0.5% → (19년) -0.2% → (20년) 0.3% → (21년) 0.7% → (22년) 0.6% → (23년) 0.3%

<표 34> 소비자물가지수 대기업 주도 특이 품목

단위: %

계정항목	2018년 기준 CAGR	2019년 기준 CAGR	2020년 기준 CAGR	2021년 기준 CAGR	2022년 기준 CAGR	2023년 기준 CAGR
우유, 치즈 및 계란	4.8	5.3	6.1	4.3	5.1	3.0
소주(외식)	2.8	3.1	3.7	4.8	4.1	0.9
라면	2.7	3.3	4.2	4.5	2.0	-3.4
맥주(외식)	3.4	3.6	4.2	5.4	4.9	2.9
탄산음료	3.1	3.5	3.1	2.5	0.5	-1.7
햄 및 베이컨	2.8	3.8	3.6	3.2	0.7	-1.1
통신	-0.5	-0.2	0.3	0.7	0.6	0.3

주: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자료: 통계청

III. 가계금융 복지조사 비목별 소비지출

1. 비목별 소비지출

-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비목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2024년을 기준으로 연간 CAGR을 구함
- 소비지출 2018년 CAGR은 식료품(5.1%), 기타지출(5.1%)이 가장 큰 값을 가졌으며, 교육비(-1.6%)가 가장 낮았음
 - 비소비지출 2018년 CAGR은 이자비용(6.4%)이 가장 큰 값을 가졌으며, 비영리 단체 이전지출(-5.8%)로 가장 낮았음

<표 45> 비목별 소비 및 비소비지출 연도별 CAGR

단위: %

	비목별	2018년 기준 CAGR	2019년 기준 CAGR	2020년 기준 CAGR	2021년 기준 CAGR	2022년 기준 CAGR	2023년 기준 CAGR
소비지출	식료품	5.1	4.3	3.7	2.7	1.9	0.8
	주거비	3.8	3.9	3.6	3.1	2.4	1.3
	교육비	-1.6	-1.7	-1.5	-0.6	-0.1	0.2
	의료비	3.9	2.9	2.2	2.0	0.6	0.9
	교통비	0.4	0.5	0.9	1.1	0.6	0.3
	통신비	-0.5	-0.1	0.0	-0.3	-0.4	0.0
	기타지출	5.1	3.6	3.4	3.6	3.1	1.7
비소비지출	세금	3.8	3.3	3.1	2.6	1.2	0.6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5.3	4.5	3.7	2.5	1.6	0.3
	가구간 이전지출	2.5	-0.7	-0.1	1.2	1.0	0.5
	비영리 단체 이전지출	-5.8	-4.9	-2.9	0.0	2.8	1.1
	이자비용	6.4	5.0	4.9	5.1	3.7	0.9

주1: 통계표의 연도는 조사연도이며, 지출은 조사연도의 전년 기준 자료임

주2: 본 자료는 소비지출(전년도) 평균값을 사용함

자료: 통계청

IV. 결론 및 요약

1. 소비자물가지수(CPI) 중분류 항목별 요약

- (공통항목 : 인건비) 최저임금의 결정이 물가를 올리는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산업별로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필요

가. 2018년 기준 CAGR 상위 15개 항목

-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6.1%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1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여 공급망 교란 등에 인한 가격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이 있음
- (가구, 가사비품 및 카페트)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5.0%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2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원목, 철강 및 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 인상 및 물류비 등의 유통비용 증가 등이 있음
- (기타서비스)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4.8%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3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비급여 의료 항목 증가와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 특정 비급여 항목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제도 변화도 가능
- (일상 생활용품 및 가사 서비스)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4.6%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4위를 기록

-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운송 및 물류비 등의 유통 비용,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증가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일상 생활용품의 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PB확대와 중소형 매장의 경우 D사처럼 유통구조를 개편하여 유통비용을 낮추면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물가를 낮출 수 있음

- 가사 서비스의 경우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정규 고용이 아닌 플랫폼을 활용한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서로 다른 플랫폼과 플랫폼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물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식료품)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4.3%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5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높은 수입 의존도, 인건비, 이상기후에 의한 작황 부진 등이 있음

- (정책제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안정 도모,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 국제 농식품 물가의 국내 영향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비농식품 투입재 가격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 검토

□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4.2%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6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인건비 항목이 있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용관리비 상승이 있음

- (정책제언) 경비인력 감축과 외주용역 계약 합리화, 용역단가의 합리화, 입주자 참여의 정기청소, 분리수거 활성화 등이 필요

□ (주거시설 유지·보수)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3.9%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7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원유 정제 원료를 사용하는

창호, 페인트, 바닥재 등의 가격 인상과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목재, 철강 등의 가격 인상, 타일공 등의 시공기사 인건비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자재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자재별 가격인상 또는 인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합리적인 중재가 필요

□ **(음식 서비스)**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3.7%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8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식자재 재료비,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의 비용 증가와 임대료, 전기 및 가스 비용 등의 고정비용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수입선 확보, 공공요금 정상화 등 구조개선 필요

□ **(비주류 음료)**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3.5%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9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당류, 알루미늄·페트(포장재)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원·부자재 가격 증가와 물류비와 인건비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누적 식품물가 파급영향은 여타 요인의 영향에 비해 크며, 제분, 제당, 배합사료, 전분 및 당류 순으로 가공식품 물가상승 가공식품 기여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곡물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행 필요

□ **(숙박 서비스)**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3.3%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10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 증가와 전기 및 가스, 인건비 등의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공정한 수수료 구조 마련 (OTA 요금 인하), 계약 관행 개선, 임대료 부담 완화(상하수도 및 재산세 감면 확대), 인건비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 **(미용용품 및 미용 서비스)**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3.0%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11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미용용품의 경우 부자재, 마케팅 비용, 인건비 상승 등이 있고 목욕료의 경우 전기 및 가스 등의 연료비 인상 등이 있음

-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2.9%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12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운송 및 물류비 등의 유통비용,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증가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정부에서는 고유가,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 소비자 할인 지원이 필요하고 제조업체들은 공정 개선과 원가 절감 노력 강화와 유통단계를 간소화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전략 필요

- **(운송 서비스)**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2.8%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13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휘발유, 경유, 전기 및 가스 등의 연료비 급등과 할증제 도입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운송 공급 제한 등이 있음
 - **(정책제언)** 플랫폼 운영 개선 및 택시기사 인력 확충 대책으로 공급구조 개편과 노사 물류 인프라 확충 협의체 구성 후 택배기사 운송 보조금 확대, 배송 환경 개선(분류, 집하 자동화) 등 물류비 경감 모색이 필요

-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2.5%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14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금속 원자재 및 화학약품의 가격 증가,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한 제품 개발로 원자재 사용량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산업계의 경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할인행사 및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 정부 정책으로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재생원료 비축과 공급원 다변화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확대해 사용 후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강화, 해외 재활용자원 공급처 확보, 규제 완화, 배터리 소재·분리 기술 개발 등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체계 구축이 필요

- **(의류)** 2018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2.4% 상승하여 2018년 상위 15개 항목 중 15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브랜드 선호도,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의 유통채널의 높은 비중으로 유통비용, 마케팅 비용, 재고비용, 인건비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수입 확대 등의 공급망 다변화, 수급 점진, 유통구조 개선, 품질 대비 가격 조사 강화 등의 유통비용 절감, 관세 인하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고 협력업체 공동구매, 생산 프로세스 자동화, 친환경 공정 전환,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구조 혁신 방안이 필요

나. 2018년에 포함 되지 않은 CAGR 상위 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

- **(단체여행)** 2020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4.4% 상승하여 2020년 상위 15개 항목 중 10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유류할증료 증가로 인한 항공료 인상 및 현지 물가 상승으로 숙박비, 인건비, 식비 증가 등이 있음
 - **(정책제언)** 국내 관광산업은 온라인 중심의 개별 자유여행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전통적인 대규모 패키지 유통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여행유통 구조 개편을 추진해 비용구조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고, 해외 단체여행객의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위약금 규정 명확화 등 기본 안전망을 구축하여 정부 차원의 사전 정보 제공 및 분쟁해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운송장비 운영)** 2020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CAGR(연평균 성장률)이 4.2% 상승하여 2020년 상위 15개 항목 중 11위를 기록
 -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환율 변동 및 높은 유류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이 있음
 - **(정책제언)** 유류세 탄력 세율 조정, 화물용 및 영업용 차량 연료보조금 지원, 서민, 영세사업자에게 연료 쿠폰 지급 등이 필요하고 정유업계에서는 국제 원유 및 정제마진 상승분을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통구조 투명화 강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석유 공급 안정화 대책 등이 필요

참 고 문 헌

- 국토교통부. (2025). **국토교통통계누리**.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2022). **년도별 생활물류(택배) 통계** [통계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2025).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보도자료].
- 김다빈. (2024.8.14). 알바 이모도 앱으로 : 사·돌봄 플랫폼 뜬다. **한국경제**.
- 김상봉, 김정렬, 임병준, 조경준, 김시연. (2017). **거시경제학**. 파주: 지필미디어.
- 김상효, 김종진, 주준형. (2022).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KREI 이슈리포트, PRN2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 최재현. (2024).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KREI 이슈리포트, PRP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희, 이학주. (2016).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절감 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8(1), 349-373.
- 김용동. (2011).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 및 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1-16). 대전세종연구원.
- 김종진, 홍연아, 주준형, 박서윤. (2023).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KREI 보고서, R9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5). **2025년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종합보고서**.
- 로빈. (2025). **2024 Korea Market Insight Report**.
- 박선구, 정대운, 유일한. (2024).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 (건설정책리뷰 2024-0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박지영. (2025.4.2). 보령머드 장인의 5천원 뚝배기. 다이소 납품, 남는 건 인건비뿐. **한겨레**.
- 서울연구원. (2022.10.07). **택시대란 이슈분석: 택시요금 인상은 합당한 대책인가?** [현안보고]. 서울연구원.
- 서현진. (2025.4.30). 25년 1분기 국내 숙박업 실적 양극화 뚜렷. **호텔앤레스토랑**.
- 신익수. (2024.1.14). 겹나서 여행 가겠나 : 해외여행 비용 13년만에 최대폭 상승. **매일경제**.
- 유재국. (202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 271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도운. (2024.9.5). 숙박 플랫폼 논의 1년 만에 수수료 1% 인하 : 자율규제 첫 합의. **KBS 뉴스**.
- 이도운. (2025.5.5). 지난해 택배 물량 59.6억 : 5년간 2배 이상 성장. **KBS 뉴스**.
- 이민지. (2025.1.9). [Why&Next]원가는 안 올랐다 : 부터 화장품 가격 인상, 왜?. **아시아경제**.
- 이지훈, 홍원준, 조홍종. (2024).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 48(1), 79-114.
- 임용지, 이동재, 이윤수, 박창현. (2024).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4-14호). 한국은행.
- 정용철. (2022.2.2). 국내 보일러 4사, 10년 만에 가격 줄줄이 인상 : 원자재 압박 심화. **전자신문**.
- 최봉석, 이유수. (2013). **전력요금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KEEI 기본연구보고서, 13-04). 에너지경제연구원.
- 컨슈머인사이트. (2024). **2024-25 국내·해외 여행소비자 행태의 변화와 전망** [보도자료].
- 통계청. (2024).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25).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2025). **생산자물가지수** [지표누리].
- 통계청. (2025). **소비자물가지수월보** [온라인 간행물].
- 통계청. (2025). **소비자물가지수** [지표누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5). **2023년 유통실태 종합** (조사결과 종합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 **해외곡물시장동향** (격월간지 2025년 제14권 제3호).
- 한국부동산원. (2022). **관리비 공개의무 공동주택 17,659단지 1,066만 세대, 관리비 연간 약 23조원 규모** [보도자료].

한국부동산원. (2025). 25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한국부동산원. (2025).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한국식품산업협회. (2025). 음료업계,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노력 [보도자료].

한국은행. (2024). 「생산자물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보도자료].

한국은행. (2025). 경제통계시스템.

행정안전부. (2025). 지방물가정보 가격통계.